

2007年 2月

碩士學位論文

연암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鄭宰旭

연암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연구

A Study on Literature ideas of Yeonam's Novels

2007年 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鄭 宰 旭

연암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연구

指導教授 金 樹 中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6 年 10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鄭 宰 旭

- 목 차 -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목적	2
2. 연구사와 연구방법	2
II. 연암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7
1. 인본·평등을 추구한 삶	8
2. 개혁·보수의 갈등 시대	11
III. 연암소설의 주제와 사상적 기반	15
1. 서민중심적 삶의 인식	16
1) 서민의식의 새 유형 <穢德先生傳>	17
2) 서민중심의 <馬駒傳> <廣文者傳> <烈女咸陽朴氏傳> ..	19
2.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	28
1) 지배계층의 허상을 폭로한 <兩班傳>	28
2) 양반의 이중성에 나타난 <虎叱> <許生傳>	32

3. 중인층이 겪는 신분적 한계	38
1) 科擧에서 소외된 인물의 좌절감 <閔翁傳>	38
2) 사회적 부조리를 보이는<金神仙傳> <虞裳傳>	40
IV. 연암소설의 사상적 인식과 표현	45
1. 연암소설의 인식론	46
1) 사실주의 사상	51
2) 민족주의 사상	57
2. 연암소설의 표현론	64
V. 결 론	76
【參考文獻】	79

영문 초록

A Study on Literature ideas of Yeonam's Novels

JUNG, JAE WUK

Advisor: Professor. KIM, SU-JU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Yeonam Park Ji-Won produced about 10 novels based on distinctive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of problems of his society. The literary ideas in his novels resisted against general conceptions and presented new sense of value and world view.

Chapter 1 pres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looks at previous studies and presents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looks at his life which pursued humanism and equality and conflicts between innovative and preservative parties.

Chapter 3 speculates themes and ideological foundations of his novels. It analysed his ten novels such as <Majangjeon> <Yedukseonsangjeon> <Yangbanjeon> <Hojil> <Minongjeon> <Kimsinseonjeon> <Ouisangjeon> <Husaengjeon> <Gwangmunjajeon> and <Yeolnyohamyangparkssijeon> according to commoners-oriented recognitions of life, antipathy, and limits to status system experienced by the people.

Chapter 4 deals with ideological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in his novels. His epistemology reflected realistic and national ideas. His realism revealed his ideas or feeling honestly and did not decorate at all. He believed that true realism had to include tiny and disgusting things. He extended it to nationalism. Nationalism focused on the present instead of the past and Joseon-oriented ideas instead of Chinese ideas.

In particular, as his novels had Joseon-style language and native rhymes, his distinctive literary style was revealed. In respect to his representation, his novels had parody and humor, and configured figurative conceptions.

Previous literary ideas suggested imitation of Chinese literature in a fixed standpoint was morality, but Yeonam faced up to reality to resolve social problems as a pioneering author with subjective mind.

I. 서론

1. 연구목적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조선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문학가이다. 당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근대 의식으로 표출되는 연암의 문학사상은 작품 속에서 사회현실의 반영과 작가현실의 투영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의 사상과 함의된 주제의식을 읽어내도록 하고 있다. 연암소설의 문학사상을 중요하게 살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대의 지배계층에 속한 작가들은 주체적 의식 없이 中華主義 사상이 담긴 명나라의 문학을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것을 道로 여겼다. 이와는 달리 연암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조선풍의 어투로 개성이 담긴 사상적 소설을 썼다. 연암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된 서민층이며 이들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선진문명의 문학사유의 문체와 자유분방한 사고를 드러냈다. 시대적 변화를 선도한 그는 연암 본연의 色을 문학에 접목하여 당대 사회·문화상을 제시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소설의 주인공에 결부시켜 주제의식과 사상을 표현하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현실은 연암의 이러한 작품을 인정하지 못했다. 당시의 지배계층에게 있어 문학의 표현이란 오직 명나라의 문학을 모방하거나 고문의 문체를 답습하는 것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풍조에 과감히 반기를 든 이가 연암이었다. 연암은 당대의 만연된 모방적 풍조를 그의 소설로써 부정했고 이를 통해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종래까지 연암에 대한 연구는 그의 실학사상과 利用厚生을 펼친 실학자로서의 연암과 특정한 소설작품에 편중하여 검토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표면에 부상시키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 과도기의 인물인 연암에 관해 지금까지는 실학적인 경향과 역사적 공과에 치중하여 문학적 연구가 주가 되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가 「열하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암의 문학사상은 중시되지 못했다. 현전하는 연암소설 10편을 하나의 일관된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특정한 연암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 풍자성의 연구위주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의 문학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보수와 개혁의 갈등에서 연암소설에 나타난 사고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한다.

기존 연구들은 연암 작품의 가치, 소재, 풍자, 기교 등 외부적 구조에 관하여 많은 업적을 내놓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하여 사상적 내용성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개성적인 목소리로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의 문학사상을 강렬히 드러냄으로써 고소설의 사상적 지평을 넓힌 연암의 작품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문학사상의 분석이야말로 연암의 핵심적인 이념에 접근하는 일이며 곧 연암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사와 연구방법

연암 연구는 고전 작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최근까지 많은 양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반적 연구사를 살펴보고 그의 문학사상에 나타난 연구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1930년대 김태준¹⁾에 의해 연암 연구가 처음 시도되어 작가의 생애가 제시됐다.

김일근²⁾의 「연암소설의 근대적 성격」에서는 반봉건성, 풍자성을 중심으로 성격

1)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조선어문학회, 1931.

_____, 앞의 책.

2) 김일근, 「연암소설의 근대적 성격」, 『경북대논문집』 1집, 1956.

연구의 시작을 알리며 원전의 번역과 교주에 역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가장 뚜렷한 업적은 이가원³⁾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그는 다각적인 면에서 연암의 생애, 실학사상, 시대적 배경, 문학관 등과 작품의 문학적 배경, 사상, 영향 관계, 문학관 등을 본격적으로 고찰하였고 각 작품마다 梗概인 사건의 전개과정, 문학적 배경, 사상적 고찰, 풍자성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그의 일대기와 연암소설들을 아울러 보여주면서 연암 연구의 지평을 크게 넓혀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가원은 그의 소설들의 단락구분에만 초점을 두고 표현기법에 대해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존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 작품론이 본격적으로 표현⁴⁾되고 실학사상이나 풍자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문학을 분석하고 사상의 근대성을 새로운 경향으로 모색하였다. 민병수⁵⁾는 등장인물에 반영된 연암의 사상, 주요인물의 사회적 성분, 작가의 비판의식, 성격묘사 등에 대하여 연대적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사상에 치우친 소재론적 접근의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의 방향이 고정적인 연구에서 다각적 연구목표로 바꾸고 텍스트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⁶⁾ 강동엽⁷⁾은 연암분석의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 작가론, 문체, 비교문학연구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특히 영역별 경향에서 연암의 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문학예술로서의 가치정립이 필요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표기문자 영역부터 선결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3) 이가원, 『연암소설연구』, 을유문화사, 1966.

4) 김현룡, 『허생전의 소위 <시사삼난>의 연구』, 『국어국문학』 58, 59, 60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황폐강, 「허생전소고」, 『국어국문학』 62, 63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소재영, 「호질 재론」, 『승전어문학』 2호, 승전대 대학원, 1973.

황폐강, 「호질 연구」,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

_____, 「양반전 연구」, 『한국학보』 13집, 일지사, 1978.

5) 민병수, 「박지원문학의 연구사적 검토」, 한국학보Vol.4 No.4, 1978.

6) 강동엽, 『열하일기연구』, 일지사, 1988.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_____, 「연암문학과 사기」,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 비평사, 1983.

문영오, 『연암문학의 도교 철학적 조명』, 대학사, 1993.

7) 강동엽, 「80년대 이후 연암문학 연구동향과 그 전망」, 『한국한문학연구』 11집, 한국한문학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88.

이후, 두창구⁸⁾가 번역 실패, 연구사, 생애, 교우, 『연암집』, 소설, 시, 비교연구, 문학과 문학이론, 문학론, 문장론, 풍자성 등에 걸친 영역별 연구사를 시대 순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특집, 학술토의의 연구 경향으로까지 모색하였다. 현재 연구 동향은 그의 생애와 사상, 당시의 현실과 근대의식의 고찰을 통하여 문학관, 문학의식을 규명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연암소설의 사상적 인식과 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연암소설의 사상적 인식은 실학사상의 연구를 기반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일근⁹⁾은 실사구시학파의 계몽사상을 연구하여 연암소설의 반봉건성과 풍자성을 조명하였다. 이우성은 「실학파의 문학」¹⁰⁾에서 사회의식과 서민의식의 교차된 지점에 연암문학이 존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서민의식으로 풍자, 해학, 권위주의에 대한 반항, 인간성의 긍정을 지적하였다.

1960년대 들어와서 김지용¹¹⁾은 실학사상의 어의와 형성에 관해 살피고 그 소설에 나타난 실사구시 사상을 분석했다. 이가원¹²⁾은 실학사상, 문학관, 문단풍토를 연구하여 문학사상에 영향을 준 풍자성을 결과물로 내보였다. 이원주¹³⁾는 연암의 문학 속에서 현실 비판을 해학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하지만 계급타파론, 반봉건질서라는 문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로 황폐강¹⁴⁾은 종래의 중상주의 논의를 극복하고 작가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임형택¹⁵⁾은 연암의 의식이 그의 문학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는 당대의 윤리관은 관념적인 교섭만을 강조하여 인간성이 무시되는 경향으로 인식했고 양반사회의 당론에 의한 분열 등이 문제라고 보았다. 하지만 인식론과

8) 두창구, 「연암연구사에 대한 고찰」, 『논문집』 19집, 관동대, 1991.

9) 김일근, 「연암소설의 근대적 성격」, 『경북대논문집』 1집, 1956, pp.105~177.

10) 이우성, 「실학파의 문학」, 『국어국문학』 16집, 국어국문학회, 1956.

11) 김지용, 「실사구시 사상과 연암의 문학」, 『청주대논문집』 3집, 1960. p.79.

12) 이가원, 앞의 책. 을유문화사, 1966.

13) 이원주, 「연암소설고 I」, 『국문학』 15호, 1966. pp.272~280.

14) 황폐강, 「허생전소고」, 『국어국문학』 62, 63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15) 임형택, 「박지원의 인식론과 미의식」, 『한국한문학연구』 11, 한국한문학회, 1988.

——, 「박연암의 우정론과 합리의식의 방향」, 『한국한문학연구』 1집, 한국한문학회, 1976.

표현론을 논할 때 근거지문이 빠져 아쉬움이 있다. 조동일¹⁶⁾은 연암의 문장방법으로 합변과 제권의 방법, 독자적 문학, 언어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명호¹⁷⁾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연암 문학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행록의 전통을 언급하였고, 연암과 함께 활동하였던 문인들을 다각적으로 관계지어 제시하였다. 김혈조¹⁸⁾는 연암문학 세계를 사회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사유 양식의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유 양식적 인식, 현실주의적 인식 등을 분류하여 문학사상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신재홍¹⁹⁾은 연암의 문학사적 위상을 대상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의 기술방식을 다음과 같이 취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 인본과 평등을 추구한 연암의 삶과, 개혁과 보수의 갈등 시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Ⅲ장에서는 연암소설의 주제와 사상적 기반을 분석적 방법으로 연구해보겠다. 현존하는 연암소설은 10편으로 꼽힌다. 공통성 있는 주제를 앞세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것이다. 서민중심적 삶의 인식,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 중인층이 겪는 신분적 한계가 그것이다.

첫째, 서민의식의 새 유형 <穢德先生傳>을 중심으로 <馬駟傳> <廣文者傳> <烈女咸陽朴氏傳>을 한데 묶어 제시해 보겠다. 둘째, 지배계층의 허상을 폭로한 <兩班傳>을 중심으로 <虎叱> <許生傳>에 나타난 양반의 이중성을 고찰해 보겠다. 셋째, 등용에서 소외된 인물의 좌절감을 그린 <閔翁傳>을 중심으로, <金神仙傳> <虞裳傳>에 드러난 사회적 부조리의 문제를 밝히도록 하겠다.

제Ⅳ장에서는 연암소설의 사상적 인식과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암소설은 인식론과 표현론이 함께 어우러져 구현되었다. 연암소설에 투영된 인식론은 연암이

16) 조동일, 『한국소설의 심구』, 일조각, 1978.

17)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0.

18) 김혈조, 「연암 박지원의 사유방식과 산문문학」,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9) 신재홍,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연암소설에서 형상화된 대상인식의 문제』, 집문당, 1998.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뜻과 글자가 사소하고 하찮은 것까지 인식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 사실주의 사상에 입각한 조선풍의 어투가 드러나 있고 주체적인 의식을 형상화시킨 민족주의 사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암의 인식론을 그의 소설에 표현한 풍자와 해학,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 방법을 논하였다.

II. 연암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연암이 살았던 영 정조 시대는 혼란의 격동기였다. 국내 상황으로는 왜란과 호란의 후유증이 채 아물지 않은 상태이고 바닥 난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사조세, 환곡, 군포 등의 극심한 세금 수탈이 이어지는가하면 이괄·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면서 민중의 생활상은 말이 아니었다. 여기에 지배계층들 간의 권력 투쟁을 위한 당쟁이 심화되면서 정치는 부패와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었다.

국외 상황으로는 명 청 교체기로 기존의 중화주의 사상이 변질되고, 그동안 나라의 중심지주가 되어 왔던 주자학이 물질문명을 등에 업은 서학에게 침식되는 과정에서 슬한 변화와 진보적 대안이 제시되던 시기로, 동아시아의 국제관도 역시 극심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국내, 외의 여건 속에서 모색되어진 가장 큰 변화 조짐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조선사회를 떠받들었던 유교이념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이 중심부에 서서 시대의 흐름을 과감히 수용하려던 인물 중 하나가 연암이었던 것이다.

연암소설에서 발견되는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문학사상은 이런 시대정세를 꿰뚫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안으로서 작용한 하나의 ‘문학 대책론’이라 풀이될 수 있다.

본고는 II장에서 이러한 연암 문학사상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학사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아 온 생애를 더듬어 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당대의 시대 상황이 어떠한지도 국내, 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평등을 추구한 삶

18세기 우리나라의 걸출한 실학 사상가이며 문인학자였던 연암은 1737년 음력 2월 5일 서울 서소문 밖 盤松坊 治洞에서 박사유와 함평 이씨 사이의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본관은 潘南²⁰⁾이고 字는 仲美이며 호는 燕巖, 左蘇山人, 孔雀館, 武陵道人을 사용하였다. 여러 호들 중 ‘연암’²¹⁾이라는 호는 황해도 남동부의 김천군에 자리잡고 있는 산골짜기 ‘燕巖峽’에서 따 온 것으로, 연암이 세상을 등지고 유람할 때 장차 이곳에서 노년을 은거하기로 마음을 정하면서 호를 ‘연암’이라고 하였다 한다.

부친 박사유는 평생을 포의로 지내며 부모 슬하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일생을 보냈었다. 연암은 부친보다 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조부는 그가 임지를 옮길 때마다 연암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었다. 조부가 경기도 관찰사로 부임해 가던 해, 5살이던 연암도 따라가 엄한 훈도와 초학공부를 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은 연암을 안타깝게 여긴 할아버지는 연암에게 공부보다는 많은 시간을 종들과도 같이 밖에 나가 놀게 하였다고 한다.²²⁾ 연암은 이 시기를 통해 피지배계층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며 인간과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훗날 이러한 경험은 연암 문학사상의 기층을 형성하는 ‘인본주의’와 ‘만민평등’이라는 큰 줄기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16세에 遺安劑 이보천²³⁾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연암은 정식으로 글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장인인 이보천을 통해 『맹자』를 공부하게 되면서 유학자의 기본 교양을 익히게 된다. 妻叔되는 弘文館 校理 榮木堂 이양천에게서는 사마천의 기록인 『사기』를 통해 문장 짓는 법을 배우게 되고 손아래 처남 이재성은 연암의 평생 知

20) 예전의 반남현으로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21) 연암이라는 지명은 순수 우리말로 ‘제비 바위’를 지칭한다.

22) 김지용,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 한양대출판부, 2000. pp. 11~12. 연암의 전기를 보면 이 시절 失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3) 『李輔天條』, 『國朝人物志』, p.252. 자는 汝翼, 완산인이며 農岩 金昌協의 제자였다.

근이자 글벗이 되었다. 연암은 결혼을 통해 스승과 부인을 동시에 얻은 셈이 된 것인데, 연암의 독특한 문체와 문학사상은 이 시기를 통해 비로소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19세에 이르러서는 문단에 두각을 나타냈으나 스승격이자 처숙인 이양천의 죽음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 시기에 『연암별집』 「방경각외전」에 실린 <마장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양반전> <김신선전> <우상전>과 원문이 전하지 않는 <봉학사대전> <역학대도전>을 포함한 九傳의 작품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예덕선생, 광문, 민옹 등은 당시의 실존 인물로 연암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 세상 보는 시각을 넓혀갔으며 그들의 행적을 소설화하면서 문장의 이치를 터득하고 그만의 톡톡 튀는 생동한 문체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 이후 김이소, 황승원, 이의천, 이홍유 등과 글을 함께 읽으며 학문수양에 전력하며 폭넓은 교유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24세이던 1760년 조부의 죽음으로 생활이 더욱 곤궁해지고, 그 사이 1765년에 처음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후로 연암은 과거시험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저술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 때 담헌 홍대용과도 수시로 왕래하며 학문적 유대관계를 다지는데, 홍대용은 연암에게 新學文을 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연암과 비록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연암을 학문적 동지로 생각하며 연암의 학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北學의 四家로 불려 졌던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등의 학자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한 연암은 그들과의 학문적 만남을 통해 해박한 지식과 학문의 깊이를 채워갈 수 있었고 이때 연암의 학문적 수양은 교유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만하였다고 전한다.²⁴⁾

이와 같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학문에 편견이 없는 자세와 끊임없는 정진을 통한 그의 학문적 소양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힘이 되었고, 그의 문학이 비판적이되, 실리적이며 대안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러한 연암의 학

24) 「朴趾源條」, 『國朝人物志』, p.252.

문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4세이던 1780년, 홍국영의 독단 정치가 막을 내리고 혼미하던 정국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연암은 이때 그의 三從兄 박명원이 중국 사행의 정사로 임명되어 그의 숙원이었던 燕行의 기회를 얻게 된다. 조정에서 청나라 건륭 황제의 古稀를 축하하기 위해 박명원이 인솔하는 특별 시행을 파견했는데 여기에 연암이 정사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유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燕行을 다녀와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을 記述한 글들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1783년 간행한 것이 연암의 불세출 건문록인 「열하일기」이다.

50세이던 1786년, 유충문의 등거로 선공감 감역에 임명되는데 이는 늦은 나이에 그가 처음으로 얻은 벼슬자리이었다. 물론 연암이 과거를 일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의 글재주와 利用厚生에 대한 見識을 인정받아 선공감 감역(정9품)이라는 벼슬을 제수 받은 것이다. 이후 사업사 주박(종6품), 의금부 도사(종5품)를 거쳐 55세에 경상도 안의 현감으로 나아가 잘못된 사회제도를 비판하며 소설 <열녀함양박씨전>을 쓰기도 했다. 안의현감의 임기를 60세에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桂山草堂에서 문필 생활을 하였다. 이 초당은 桂山洞에 있는 곳으로 중국 제도를 모방하여 벽돌로 집을 지은 곳으로 연암이 서거한 후 그의 아들 종채가 계속 이곳에 살았다.

64세가 되던 1800년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였으나 66세에 벼슬을 그만두고 골짜기에 들어가 정자를 짓고 수개월 지내다가 서울집에 돌아와 1805년 10월 20일 69세의 나이로 서울 가회방 재동 자택에서 예순 아홉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연암의 묘는 경기도 장단 송서면 대세현의 선산에 부인 이씨와 합장되어 있다.

2. 개혁·보수의 갈등 시대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 연암이 살았던 18세기는 개혁과 보수의 갈등이 동시 상존했었던 시대다. 임진, 병자년의 두 차례 전쟁을 통해 서민의식이 싹트면서 봉건적인 사회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중앙정치가 문란해지면서 租稅제도인 전정·군정·환곡 3政 또한 극도로 무질서해졌다. 관리들은 관직을 매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가 하면 부정한 지방관과 아전들의 횡포 또한 극에 달했던 시대이다. 중간에서 세금을 착복하여 사리사욕을 채워 치부하는 자가 늘고, 이렇게 쌓은 부의 축적은 또 축적한 자와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양분되기도 했다. 한편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 청나라의 지배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던 때이다.

전자에서 언급했듯 연암에게 문학은 개혁과 보수의 당면한 질곡에서 이를 헤쳐 나갈 대안제시의 기능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과도기의 정점인 18세기의 한복판에서 연암에게 직면한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이를 바라보는 연암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국내, 외의 시대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를 느낀다.

먼저 국내의 상황을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암이 살았던 영·정조 시대의 정치 상황으로 우선 짚어볼 수 있는 것이 朋黨政治의 폐해이다. 붕당은 핵심적인 권력층에서 배제된 채 초야에 묻혀 있던 사림세력이 성종 이후부터 서서히 중앙정계에 등장하고 16세기말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최초 붕당형성은 先祖 때인 1575년 당시 문무관리의 인사행정권을 갖는 ‘이조 전랑직’의 자리다툼으로 촉발되는데, 신진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동인’과 기성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서인’으로 세권이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세력을 결집하면서 갈등은 거세어진다.

이러한 붕당을 통한 싸움은 조선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민생의 현안 문제는 뒤로 한 채 일명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자연 국정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이

로 인해 붕당정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붕당의 초기, 정권을 장악한 ‘동인’은 ‘서인’이었던 정철의 建儲議事件²⁵⁾을 기화로 다시 분파되는데,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어 진다. 임진왜란 이후 세력이 강화되어진 ‘북인’은 광해군을 추대하여 정권을 전담하나 ‘북인’에게 눌러 있던 ‘서인’이 ‘명분’과 ‘의리’를 들어 광해군(1608~1623)을 죄로 몰아 인조(1595~1649)를 왕위로 올리는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된다. 서인은 이로써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후로 북인은 정권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효종대의 禮訟論爭으로 남인과 서인이 서로 정권을 주거나 받거나 하다 肅宗의 庚申換局(1680)을 계기로 ‘서인’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때 서인 역시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 ‘서인’은 송시열 계열의 ‘老論’과 윤증을 중심으로 한 ‘少論’으로 분당되었다. 실권은 ‘노론’이 잡게 되었다. 실권을 잡은 ‘노론’들은 정치적 기득권을 얻기 위해 그들의 자제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에 내세우며 정치 실권을 독점하였다. 그러다 보니 왕권의 권위는 종래와 달리 권위가 없었다.

각 당들이 내세우는 당론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빚어내는 붕당간의 갈등은 왕의 생명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폐해까지로 이어졌고, 목소리 커진 신하들로 왕권은 약화일로로 걷게 된다. 이에 영조는 왕권강화, 정국안정을 목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기존의 편파적인 인재등용을 평준화 하겠다는 논리에서였다.

당시의 탕평책은 실시 초기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탕평책의 주요 내용은 각기 분파되어 있는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의 붕당의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잠시나마 조선조의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러나 탕평책을 실시한 이후 관리들을 중심으로 관직으로 나아가려는 욕구를 더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얼마 후 영조의 아들인 장헌세자가 음모에 의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계기로 장헌세자를 동정하는 ‘時派’와 장헌세자의 죽음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羈

25) 조선 선조 24년(1591)에, 왕세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 사이에 일어난 정치 문제. 서인인 정철 등이 동인의 모함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사건을 말한다. 명칭은 건저의 사건이라고도 한다.

波'로 양분된다. 그러다 이인좌의 난을 기점으로 실권은 노론이 우세하는 벽파로 몰리게 되었다.²⁶⁾ 이렇게 분당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학문인 실학을 추구하였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1752~1800)는 문예부흥을 통하여 양반·중인·서얼·평민층들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였다.²⁷⁾ 그리고 영조가 주창한 탕평책의 기초를 계승하는 반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노론 청론과 남인공철의 신진세력을 등용하고 왕권 보호를 위한 친위세력으로 왕권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현안을 해결해야 했다. 여기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은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에 기반을 둔 '북학파'였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문인들은 서학의 문집·소품·패관잡기·소설·고증학 등 서학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문장체를 사용하려는 풍조가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켜보던 정조는 '인간의 심성을 악하게 한다'는 논리를 들어 서적 수입을 전면 금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²⁸⁾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존의 질서와 사상에 반기를 들고 자유로운 세계관으로 시대를 직시한 선각자들이 줄을 잇게 되는데 북학파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법고창신의 문풍이나 이용후생적 학풍이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의 중심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연암이다. 연암은 당시의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였다.

눈을 돌려 국외적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에서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정권

26)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사, 2003. pp.242~243. 재인용.

27)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1996. p. 382. 정조는 조선조 사회, 정치현상을 잘 읽었던 왕이다. 어렸을 때 왕권의 불안정을 겪음으로써 상황판단을 잘 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진다. 이를 위해 탕평당 계열의 적극 주도를 극복해야하는 문제와 그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위상을 자신의 지향대로 설정해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

28) 강명관, 「문체와 국가정치: 정조의 문체반정을 둘러싼 사건들」, 『문학과 경계』, 2001 가을호.p. 123.

정치·사회에 밝은 정조는 국내에 경서와 사서가 많이 있는데 지질이 질기고 글씨가 커서 보기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종이 얇고 글씨가 작은 중국판을 원하는 것은 '누워서 보기'에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여 경서를 누워서 보는 것은 성인을 말씀에 존경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교체되던 시기이다. 그 여파로 조선에서는 기존의 중화주의 사상들이 동요된다.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명나라를 중원의 주인으로 여겼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도 서로 우호적인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⁹⁾ 다시 말해 중화사상은 명나라를 향한 것이었지 청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명나라를 중원의 주인으로 인정하자는 華夷論과 청이 중화의 주인이라는 현실적 시대적 흐름을 인정한 主和論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정권은 이미 청나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층들은 이를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에 대한 명분론만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문화적 풍토 역시 명나라의 문물과 풍습이 제일이라는 중화사상에 따라 명나라의 통치이념인 주자학이 지배 이념이 되고 명나라의 문명만이 조선을 이끌어준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에 빠져 청나라의 선진 문명을 거부한 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준비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학파에 대비되는 ‘북벌론’이 이에 해당한다. 동아시아의 주인은 아직도 명나라이고 지금의 청나라는 없어져야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명은 조선을 ‘東夷’로 지칭하였으며 오랑캐 중에서 가장 문명화된 오랑캐로 보았다.

Ⅲ. 연암소설의 주제와 사상적 기반

연암에게 있어 문학은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자신의 인식체계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모범적 근거로 작용했다. 조동일은 연암의 문학에 대해 “과거를 통해서 입신하는데 필요한 詞章도 아니며, 산림으로 물러나서 심성을 기르는 데 필요한 載道之器도 아니었다. 그에게 문학은 落拓不遇한 위치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선비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³⁰⁾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연암에게 문학은, 깨어있는 선비로서 현실을 인식하는 사유방법이자 선비의 마땅한 도리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제와 같은 것이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연암의 문학사상은 어떤 것이었으며, 작품 속에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 본고는 연암의 문학사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작품 속에는 또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고는 먼저 다음의 것을 전제로 한다. 문학사상이란 곧 작가의 의식과 상통한다는 점이다. 물론 항상 작가의 의식이 사상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언제나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하고 싶은 무언가의 의미를 전달하려 한다. 전달하려는 무언가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은 독자에게 있어 결국 작품의 주제를 찾는 것과 같다. 독자가 작품의 주제를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식을 알아내는 것이고, 이 작가 의식이 바로 문학사상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문학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작품의 주제의식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연암의 문학 속에 내재된 각각 작품의 주제의식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필자는 연암의 문학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의식을 도

3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권4, p.258.

출하려고 한다. 이 공통된 주제의식 속에서 도출되는 각각의 것이 바로 연암 문학 사상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문학 사상이 작품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개개의 작품 분석을 통해 이루어 낼 것이다.

다루게 될 작품은 현전하는 연암소설 10편을 대상으로 한다. 원래 연암소설은 <馬駟傳> <穢德先生傳> <閔翁傳> <兩班傳> <金神仙傳> <廣文者傳> <虞裳傳> <鳳山學者傳> <易學大盜傳> <許生傳> <虎叱> <烈女咸陽朴氏傳> 12편과³¹⁾ <鳳山學者傳> <易學大盜傳>이 있다고 하나 <鳳山學者傳>, <易學大盜傳>은 현존하지 않는 관계로 제외하고 10편을 통한 연암소설의 사상적 기반을 세 가지 주제를 크게 잡아 분석하고자 한다. 분류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인물이 주인공을 통해 표출되는 만큼 그들의 계급에 따라 서민층과 지배층, 그리고 중인층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민중심적 삶의 인식,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 중인층이 겪는 신분적 한계가 그것이다.

1. 서민중심적 삶의 인식

연암의 작품 중에는 소외되기 쉬운 하층민을 주요 인물로 등장시켜, 그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서민적 삶을 통해 생활 철학을 배워나가는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군이 있다. <마장전>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열녀함양박씨전>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연암 초기 문학의 작품들로 주로 20대에 쓰여진 작품들이다. 이후 작품인 <열녀함양박씨전>도 서민층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당시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연암은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양반가의 자제로서 꿈꾸는 입신출세의 의지와 당대의 부패한 정치상황, 그리고 양반사회

31) <열녀함양박씨전>은 『연암집』 본집에 실려 있고, <허생전> <호질>은 「열하일기」에 실려 있다. 나머지는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으나, <봉산학자전> <역학대도전>은 현존하지 않아 10편의 단편소설을 연암소설로 보고 있다.

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들의 혼재에서 벗어난 갈등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표출되었던 것 같다.

연암은 자신의 우울증을 달래려고 이야기꾼을 불러다가 세상사의 이런저런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게 되는데, 이 때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쓴 작품들이 전자에 분류한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들의 특징은 주인공들이 거지, 농부, 일꾼 등 무식하고 비천한 하층 민중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주인공이 하층민인 만큼 대사 또한 하층민의 일상어와 은어, 비어 등이 고스란히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는 진솔하고 활기찬 삶의 모습으로 구현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반사회의 윤리적 타락상 또한 통렬하게 풍자되는 양상을 담아내며 유쾌한 풍자의 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기존의 문인들이 양반 중심적 사고에서 양반의 생활을 찬미하는 과시적이고 향락적인 고문체를 구사하는 반면, 주인공을 ‘서민’층에서 물색하고, 당대의 천시 받고 소외받았던 서민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언급하고 그들의 생활상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한 연암의 작품은 당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연암만의 독특한 시각을 담아내는 작품들로 가치있는 작품들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예덕선생전>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서민의식의 새로운 유형 <穢德先生傳>

<예덕선생전>은 당대의 명망있는 선비 선술자가 그의 제자 자목에게 설교하는 형식을 취하는 작품이다. 선술자가 천인 역부 ‘엄행수’라는 하층민을 ‘예덕선생’이라 부르며 그를 진실한 친구로 대하자, 제자 자목이 사대부가 서민과 벗을 할 수 있는지, 엄행수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부칠 수 있는지를 그의 스승 선술자에게 질문하며 반감을 표한다. 이에 선술자는 자목에게 하찮고 더러운 일을 함에도 가식없고 청렴한 엄행수야말로 존경받아야 할 인물임을 들어 진정한 우도란 무엇이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작품이다.

<예덕선생전>의 창작동기를 밝히고 있는 ‘자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선비들이 먹고사는 데에 연연하면 온갖 행실 이지러지네 호화롭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다 해도 그 탐욕 고치지 못하거늘 엄행수는 똥으로 먹고살았으니 하는 일은 더럴망정 입은 깨끗하다네 이에 예덕선생전을 짓는다.³²⁾

연암은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된 선비들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고수하려는 습성 때문에 탐욕을 부리게 되고, 탐욕은 그릇된 행실을 낳게 하는데, 가진 것이 없고 직업이 하찮은 서민들은 비록 하는 일이 거칠고 더럽지만 현실에 순응하고 욕심내지 않아 탐욕스러운 양반이 진실로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예덕선생전>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 ‘선굴자’는 연암을 대변하는 대리인이자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서민의 삶과 양반의 허위적 삶을 풍자하고, 진정한 삶의 자세와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의기가 흡족해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 먹을 뿐이지.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귀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 하겠느냐고 대꾸하고,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흙을 짚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³³⁾

그래서 나는 엄행수에 대하여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어찌 감히 벗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일세.³⁴⁾

선굴자가 엄행수의 말을 빌려, 엄행수를 ‘예덕선생’으로 추어올리고 예찬하는 이

32) 「방경각외전」, <자서>, 土累口腹 百行餒缺 鼎食鼎烹 不誠饕餐 嚴自食糞 迹穢口潔 於是述穢德先生.

33) 앞의 책, 朝而一孟飯 意氣充充然 及日之夕 又一孟矣 人權之肉則辭 日下咽 則蔬肉同飽矣 奚以味爲 勸之衣則辭 曰衣廣袖不閑於體 衣新 不能負塗矣.

34) 앞의 책, 故吾於嚴行首師之云乎 豈敢友之云乎 故吾於嚴行首 不敢名之 而號曰 穢德先生.

유를 자목에게 설명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암만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분별해 낼 수 있다. 班常의 구분이 엄연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층민은 糞을 나르는 직업인을 ‘건실한 삶의 자세’를 지닌 인물이라며 예찬하는 연암의 시각은 ‘만민은 평등하다’는 인간 존엄사상과 평등의식이 전제되지 않고 언급될 수 없는 설정이다.

연암은 <예덕선생전>을 통해 형식적인 체면주의에 사로 잡혀 고답적이며 무위도식하는 양반층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며, 자신의 분수를 꾀없이 지키며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다. 또 엄행수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더불어 도의지교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며, 참다운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모술수와 탐욕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도 꾀없이 자신의 분수 찾기와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는 삶이야말로 값지고 귀한 삶이라는 연암의 시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이다. 깨끗함 속에 숨겨진 더러움, 더러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깨끗함, 이를 분별해 내는 연암의 慧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2) 서민중심의 <마장전> <광문자전> <열녀함양박씨전>

<마장전>은 『燕巖別集』 「방경각외전」에 수록된 작품으로, 세 명의 걸인이 등장하여 양반들의 친구 사귀에 대한 도리를 대화를 통해 전개하는 대화체형 소설이다. ‘마장’은 말 거간꾼이라는 뜻으로, 그의 입을 빌려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위선의 탈을 쓴 군자들의 친구 사귀기를 풍자를 통하여 당대 지배계층들에 대한 세태와 友道를 비판하는 작품이다.³⁵⁾

연암이 <마장전>을 쓴 동기는 ‘자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35)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p.139.

오륜 끝에 벗이 놓인 것은 보다 덜 중시해서가 아니라 마치 오행 중의 흠이 네 철에다 왕성한 것과 같다네 親과 義와 別과 序에 信아니면 어찌하리 常道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벗이 이를 시정하나니 그러기에 맨 뒤에 있어 이들을 후방에서 통제하네 세 광인이 서로 벗하며 세상 피해 떠돌면서 참소하고 아침하는 무리를 논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비치어 보이는듯하네 이에 마장전을 짓는다.³⁶⁾

‘자서’에서 연암은 인간이 지켜야 할 五倫 중 ‘우정’이 마지막에 놓인 연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놓은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할 네 덕목들이 잘 유지되는지를 통제하고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친구’의 도리이기에 마지막에 위치해 놓았다고 설명하고 그만큼 친구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암은 당대 양반들의 ‘친구 사킴’이 그렇지 못함에 대해 경계하고자 <마장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마장전>의 서사구조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 ① 교우의 여러 양상을 연암이 쓴 부분³⁷⁾
- ② 송옥, 탐타, 덕홍이 友道에 관해 대화하는 부분³⁸⁾
- ③ 골계선생의 교우론을 보이는 부분³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락 ①을 통해 연암은 친구의 사킴과 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양상을 보여주고 ‘진실하지 못한 친구’는 ‘친구가 아님’을 역설한다.

36) <마장전>, 『연암집』,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叙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迺正之 所以居後 迺殿統括 三狂相友 遜世流雜 論厥讒諂 若見髮眉.

37) 앞의 책, 馬駟舍僧擊掌擬指管仲蘇秦 ~ 訟情淺深 非盛友也.

38) 앞의 책, 宋旭趙闢拖張德弘相與論交於廣通橋上 ~ 帶索而歌於市.

39) 앞의 책, 滑稽先生友情論口 ~ 猶不爲馬駟之術而況君子而讀書者乎.

“귀에 대고 소근 거리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요, 나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은 깊은 사림이 아니요, 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것은 훌륭한 벗이 아니다.”⁴⁰⁾

또 낮빛을 가리고 아침하며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친구는 이기적이며 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이들을 빗대어 ‘심장이 약한 남편에게 위선의 탈을 쓰고 정성으로 약을 달이듯 하는 첩’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단락 ②에서는 세 결인이 당시의 군자들 간에 행해지는 실질적인 ‘친구 사림의 모습’을 ‘옷감’ 과 ‘학’ 이라는 사물을 빌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연암의 풍자성과 문학성이 돋보이는 단락으로 정직하지 못한 당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인식하는 모습이 날카롭게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그 중 ‘학’을 비유해 친구 사림을 표현하는 대목이다.

친하 사람이 불따르는 것은 형세요, 모두가 차지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명예와 이익이다. 술잔이 입과 더불어 약속한 것도 아니건만, 팔이 저절로 굽혀지는 것은 응당 그럴 수밖에 없는 형세이며, 학과 그 새끼가 울음으로써 서로 화답하는 것은 바로 명예를 구하는 것이며, 벼슬을 좋아하는 것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따르는 자가 많아지면 형세가 갈라지고, 도모하는 자가 여럿이면 명예와 이익이 제 차지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오랫동안 이 세 가지를 말하기를 꺼려 왔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은유적인 말로 네게 알려 주었는데 네가 이 뜻을 알아차렸구나.⁴¹⁾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는 참된 우정이 아님을 학을 빌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인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변형되며 타락할 수 있다는 지배계층의 이기적 속성에 따른 친구 사림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다. 연암은 당대 양반들의 우도가 군자지교라고 하여 표면상으로 고결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우도를 수단으로 권세, 명예, 이익을 추구하는 속된 인간관계라며 잇속을 바라

40) 앞의 책, 故附耳低聲 非至言也 戒囑勿洩 非深交也 訟情深 非感友也.

41) 앞의 책, 天下之所趨者 勢也 所共謀者 名與利也 盃與口謀 而臂自屈者 應至之勢也 相和以鳴 非名乎 夫好爵 利也 然趨之多則勢分 謀之者衆 則名利無功 故君子 諱言比三者久矣.

는 인간관계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이고 진실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연암은 ‘참된 우정’이란 자유로운 상호 감정과 의식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람다운 도리를 하는 것이고, 이야말로 인간 윤리의 기본으로 보았던 것이다. 특히 ②단락에서는 세 걸인들의 생생한 대화체, 즉 문답을 통해 주제를 도출해 내는 수법이 시도되는데 김영동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서사 전개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⁴²⁾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송옥 交 ‘그럴 듯한 모습일 뿐 도는 아님’ 交道‘군자지교’, ‘마장지교’	-----(友道)----- 장덕홍 중의-友道비판	-----(友道)----- 조탑타 참된 交(충)‘사심 없는 사귄’	
--	---	---	--

(표1) <마장전> 작품구조

한편 세 걸인이 만나 친구와의 사귄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장소는 ‘廣通橋’인데, 광통교는 다음 세 가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 작품의 주요 매개체가 된다.

첫째, 광통교라는 실질적인 지명 속에서 찾아지는 상징성이다. 광통교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남대문으로 가는 서울의 중심다리로 이때 광통교의 상징은 조선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심벌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당시 조선사회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파고 든 중화사상 속에서도 ‘광통교’라는 우리의 지명을 작품 속에 끌어 와 중심 서사 배경으로 삼는 것은 곧, 우리 조선에 대한 연암의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암의 민족주의 사상을 보여 준다.

셋째, 광통교는 종로와 남대문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다리이다. 다리는 서

42) 김영동, 앞의 책, p.114.

로 다른 두 장소를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 의미로 볼 때 ‘광통교’는 서로 다른 두 의미를 한가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종주는 ‘광통교’라는 장소에서 벌이는 친구의 사킴에 대한 토론은,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술책과 권도에 떨어진 ‘믿음’과 마땅히 세상에 널리 통해야 하는 ‘믿음’의 본래 의미를 이어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⁴³⁾ 본고 또한 그와 같은 의견이다.

단락 ③에서는 조탑타, 장덕홍, 송옥 세 절인의 말을 들은 후 익살 잘하는 골계 선생이 등장하여 ‘우정론’을 언급하는 부분인데, 군자 간의 친구 사킴에 대해 ‘아침’과 사람과의 사이에 취약한 ‘틈새’를 잘 활용하는 것이 벗을 사귀는 도리라며 양반들의 친구 사킴에 대한 비평 섞인 풍자를 한다. 또 부귀를 누리는 자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아끼기 위해 전전공공하므로 ‘義’니 ‘忠’이니 부르짖는 것은 공허하고 상투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으나 가난한 자는 바라는 것이 많은 까닭에 ‘정의’를 한없이 그리워한다⁴⁴⁾는 골계선생의 지적과, 조탑타의 입을 통해 “나는 차라리 세상에 친구가 없으면 없었지 군자의 사킴은 앓겠다”⁴⁵⁾며 양반의 위선에 찬 삶을 단호히 부정하는 모습은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서민의 삶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연암의 시각이 두드러진다.

<마장전>은 사대부들의 위선적이고 득의에 찬 친구 사킴의 모습을 절인의 입을 통해 기발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간에는 무엇보다 연암의 현실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 유리되지 않고 현실과 밀착된 속에서 발견한 서민의 ‘서민 중심적 사고’는 연암의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이라고 해석된다.

이 외에도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열녀함양박씨전>의 작품에서도 서민적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은 쉽게 발견된다.

43) 이종주, 앞의 책, p.139.
 44) <광문자전>, 然則忠而處交義而得友.
 45) 위의 책, 吾寧無友於世 不能爲君子之交.

<광문자전>은 연암이 열여덟의 나이에 썼던 작품으로⁴⁶⁾ 명예를 탐하며 남을 헐뜯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 당시의 양반 유형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은 漢城의 뒷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광문’이라는 걸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광문자전>의 특징이라면 첫째, 광문이라는 주인공에 관한 여섯 편의 일화가 삽화식의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연암은 이 일화들을 통해 걸인 ‘광문’의 인간성과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다양한 일화로 구성되는 만큼 주변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걸인에서 시작하여, 藥肆 富者, 名妓 雲心, 官僚, 士大夫, 暴力輩들이 등장하는 등 각계각층이 출연한다. 실로 광범위한 등장인물 군을 이루고 있다. 셋째, 못생기고 천한 태생의 걸인 ‘광문’을 이 다양한 주변인물 모두가 인정하고 그와 ‘친교’를 맺으려 한다는 점이다. ‘광문’을 좋아하는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광문이 거짓되지 않는 진실하고 성실한 인간유형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누구에게나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최하층민인 걸인의 출신임에도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설정은 연암의 의식 속에 깔린 인본주의 사상과 진실성을 인간의 최고 덕목으로 뽑는 연암이었기에 가능한 설정으로 당대로서 용납키 어려운 파격적인 설정이라 여겨진다.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꽃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田庄,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잡고서 본값의 십분의 삼이나 십분의 오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⁴⁷⁾

광문에 대한 사람들의 信任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문이가 빚보증을 서면 액수와 담보에 상관없이 거액의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광문이 액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인정되는 인물이라는 것인데, 이 대목은 하나의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

46) 연암이 <서광문전후>을 20대 후반에 작성한 작품이다. 이 내용에 <광문자전>의 속편임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18세에 지은것이라고 본다.

47) 앞의 책, 時殖 錢者 大較典當 首飾瓊翡衣件器什官室田僮奴之簿書 參伍本弊 以得當然文爲人保賃.

당대의 사람들이 ‘信義’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이야기의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는 점이다. 광문이가 나서는 곳은 어디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안 되는 일이 없다. 싸움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중지를 시키거나, 내로라하는 기생 운심이가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광문’이가 연회에 참석한 뒤라야 춤을 추어 보이는 것⁴⁸⁾도 ‘광문’에 대해 각별히 예우하고 인정하기에 가능한 대목이다. 또 “결혼할 때 미색을 구하는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이므로 자기는 못생겼으니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⁴⁹⁾라는 광문의 풍자에서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한 속에서 날카롭게 빛을 발하는 연암의 남녀 평등사상을 읽어낼 수 있다.

연암은 <광문자전>을 통해信義있는 생활 자세와 분수를 알고 허욕을 부리지 않는 건실한 삶의 태도를 긍정하고 이를 통해 계급의 차이는 충분히 초월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烈女咸陽朴氏傳>은 연암이 安義縣監에 재직하던 때인 1793년 이후에 썼던 것으로, 당시 수절 대신 자살을 통해烈女로 찬미되는 한 여인과 평생을 수절해 온 한 여인의 실화를 삽화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또 기존의 작품과는⁵⁰⁾ 달리烈女로 칭송되는 주인공에 대한 일대기를 後日譚으로 기록하면서 열녀를 바라보는 연암의 시각도 함께 게재되어 있다.

연암은 <烈女咸陽朴氏傳>을 통해 남편이 죽으면 으레 수절하는 것이 관례이나, 남편의 뒤를 이어 자살하는 과부들이야말로 아름답고 열녀라 칭하는 당시의 ‘烈女觀’에 대해 수절과 자살 모두烈女라 칭할만하지만, 이는 중화사상에서 유래한 인습으로 지나치게 인간의 본능을 철저히 억제하는 부당한 강요라고 지적하고 있다.

<烈女咸陽朴氏傳>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 중 한 여인은 일찍 과부가 되어 평생을 수절한 여인으로 아들 형제를 모두 이름난 관리로 두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

48) <광문자전>, 文益前坐扶膝度曲 鼻吟高低 心即起更衣 爲文劍舞.

49) 위의 책, 則曰夫美色衆所也嗜然非男所獨也 唯女亦然也.

50) 보통 <허생전>의 後識이나 <호질>이 後識은 주인공 또는 소재원 및 작품에 대한 평가를 보이고 있다.

들에게서 한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과부로서 행실이 부정하다 하여 그의 아들의 ‘벼슬길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주인공은 ‘과부라고 혈기가 없겠느냐’며 수절이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말한다. 그녀는 품에서 동전 한 닢을 꺼내며 깊은 고독과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銅錢을 굴리면서 아들 형제를 입신시키기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굴렸는지 동전에 새겨진 글씨는 이미 없어지고 형체 또한 닳아져 있었다. 연암은 이 여인을 통해 수절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밝히며 수절한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열녀라고 칭송한다.

자살을 택해 열녀로 칭송되는 두 번째 주인공의 박씨 여인은 대대로 縣吏를 지낸 중인집안의 출신으로 연암이 재직 당시 通引으로 있었던 朴相孝의 조카딸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릴 때부터 조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후 19세에 함양의 아전 林述曾에게 시집갔으나 술증이 본디 병이 있어 성례한 지 반년이 못 되어 죽었다. 박씨의 집안에서 정혼 후 소문을 통해 술증이 지병을 있음을 알고 이를 말리려 했으나 박씨는 이미 언약한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결혼을 강행했던 것이다.

남편이 죽은 후 박씨는 예를 다하여 초상을 치른 뒤에 며느리의 도를 다하여 시부모를 섬기다가 남편의 大祥 날에 약을 먹고 죽었다. 젊은 과부로서 오래 이 세상에 머문다면 친척들의 연민을 받고 또 이웃사람들의 망령된 생각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喪期가 끝날 때를 기다려 지아버가 죽은 그날 그 시각에 자살을 택하는데, 이런 박씨를 연암은 ‘열녀’라 하나 ‘지나치다’며 그녀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 연암이 열녀 박씨의 죽음에 대해 ‘지나치다’고 한 까닭은 그녀의 죽음이 잘못된 사회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한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중화주의적 사회제도라는 것이다. 명나라에는 결혼을 한 아내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 두 지아버를 섬기지 않는다는 과부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는 개가금지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 풍속이 막심한 폐단을 이루어서, 어떤 이는 納采하고 醮禮를 이루지 않

왔다거나, 성례만 하고 아직 첫날밤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행히 사고가 있으면 평생토록 과부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데, 이런 건 오히려 나은 편이고, 심지어는 世誼가 두터운 집안 사이면 아이가 뱃속에 들었을 때 이미 언약한다거나, 또는 다박머리 때 부모끼리 말이 있었다가, 불행하면 독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어서 같이 따라 합장되기를 구하니, 이는 예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므로 군자들은 그런 것을 尸奔이라고 譏弄하기까지도 하고, 또는 範淫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국법으로 이를 엄격히 단속하여 그 부모에게 죄를 주기로 하였으나 마침내 습속을 이루었으니 동남 지방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므로 유식한 집안에서는 여자가 성년이 된 뒤에 비로소 혼인을 말하니 이는 요즈음 일입니다.”⁵¹⁾

이 글에서 연암은 당시 改嫁를 반대하는 잘못된 사회제도를 꼬집고 자살하는 여인들이야말로 억울한 죽음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와 같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연암은 ‘수절’과 ‘자살’을 택한 두 여인 모두 열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택한 자에게만 ‘열녀’라 칭송하는 것이 당시 세인들의 의식 속에 죽음을 지나치게 美化하고 있는 경향과, 수절이라는 것도 얼마나 피눈물나는 克己가 필요한가를 들어 ‘과부의 의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經國大典」에서 개가한 이의 자손을 正職에 등용하지 말라고 한 國典은 서민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반 천민의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여인에게 관례화돼 있는 당시의 ‘과부 절개를 지키기’는 농가·委巷의 여인들까지 더러 물불에 몸을 던지고 독약을 먹고 목을 매는 일이 잦은 당시의 현실상황에서 잘못됨을 두 여인을 들어 풍자했던 것이다.

박씨의 순절을 완곡히 비판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만연하는 사회풍조, 나아가 과부의 개가를 금지시킨 사회제도에까지 비판이 확대되고 있는 이 작품은, 삽화를 넣으면서 설명과 문답으로 간결하고 실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51) <태학유관록>, 「열하일기」, 鶴汀曰 中國此俗 亦成痼弊 或有納采而未醮 合卺而未媾 不幸有故 終身守寡 此猶之下也 至於通家舊誼 指服議親 或俱在髻髻 父母有言 不幸而至有飲鴆投繯 以求殉紼 非禮莫大 君子機其尸奔 亦名節淫 國憲申嚴父母有罪 而遂以成俗 東南尤甚 故有識之家 女子及笄然後 始通媒妁 此皆叔李事也.

2.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

1) 지배계층의 허상을 폭로한 <兩班傳>

<양반전>의 배경이 되는 18세기는 주지하다시피 상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역관, 아전 등이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가 하면 평민층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던 시기이다. 경제력을 가진 이들은 기존의 고루한 양반과는 달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띠었다. 국가에서도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 많은 평민들에게 돈을 받고 양반으로 상승시켜 주는 등 양반계급 賣買行爲가 암암리에 행해졌고 신분제는 크게 동요하던 시기였다. 한편 일부의 지배 관료층은 고답적인 가문의식과 공허한 명분만을 내세우면서 형식 따지기에 급급하고 부패 또한 심하였다.

연암은 나태하고 공허한 명분중심에 얽매인 지배층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그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풍자하게 되는데 <양반전> <허생전> <호질>을 대표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연암은 <양반전>에서 지은 동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선비란 바로 천작이요 선비의 마음이 곧 뜻이라네 그 뜻은 어떠한가 권세와 잇속을 멀리하여 영달해도 선비 본색 안 떠나고 곤궁해도 선비 본색 잃지 않네 이름 절개 닦지 않고 家門 地體 기화 삼아 조상의 덕만을 판다면 장사치와 뭐가 다르랴 이에 양반전을 짓는다.⁵²⁾

선비란 모름지기 권세와 잇속을 멀리해야 하나 양반들이 가문과 지체만을 따지며 문벌의식에 사로잡히고 잇속을 챙기니 하찮게 여기는 장사치와 무엇이 다르겠냐며 양반들의 허풍스러운 가문의식을 경계코자 <양반전>을 지었다고 했다.

52) <양반전>, 『연암집』, 士迺天職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雜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9 醜嚮世德 商賈何異 於是述兩班.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군수가 새로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몸소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다보니, 해마다 쌓여서 그 빚이 천석에 이르렀다.⁵³⁾

정선 고을에 글 읽기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신임 군수가 부임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 예를 표할 정도로 명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선비의 명성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형식적인 명성뿐이지 내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생계를 책임질 만한 경제적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단 한 톨의 식량도 일귀널 만한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民生苦를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양반이요, 家長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몰락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연암은 이러한 몰락 양반에 대한 실생활을 <양반전>을 통해 여과없이 보여 주며 당시의 兩班象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 내는데, 여러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그 중 旌善양반의 처가 남편에게 꾸짖는 대목이다.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며,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도 글을 잘 읽지만 현관에게 환곡을 갚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그 놈의 양반.”이라 했다.⁵⁴⁾

이 대목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당시의 현실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먼저 夫婦有別과 男尊女卑가 엄격한 조선사회에서 하늘같은 남편에게 쏟아내는 아내의 ‘남편 비판’은 당시의 여성이 남성보다 현실적 성향이 강하다는 모습과 글 잘 읽는 남편보다는 생계를 책임질 줄 아는 남편이 절실하다는 당시의 남성상이 제시돼 있는 것이다. 또 빌린 환곡을 갚지 못하는 남편에게 ‘한 푼짜리도 못되는 양반’

53) 앞의 책, 旌善之郡 有一兩班 賢而好讀書 每郡守新至必親造其廬而禮之 然家貧 歲食郡糶 積歲至千石.

54) 앞의 책, 其妻罵曰 生平子好讀書 無益縣官糶 咄兩班 兩班不直一錢.

이라는 대목은 양반의 위세를 그야말로 바닥에 팽개치듯 내동댕이치며 권위가 쓸데없다고 짓밟고 있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필요없다는 단호한 표현이다. 연암은 <양반전>에서 旌善양반의 처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사상에 사로잡힌 종래의 여인상과는 다른 현실적이고 적극적 성향의 새로운 여인상을 제시하며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서 18세기의 조선사회 모습을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광문자전>의 운심, <허생전>의 허생의 처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⁵⁵⁾

<양반전>에서 연암의 문학사상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文券 1·2 대목을 들 수 있는데, 양반이 지켜야 할 도리를 싣고 있는 부분으로 양반계층의 표면과 이면이 표리부동한 모습을 생동감있게 전달하고 있다.

제1문권의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빨을 마주치고 머리 뒤를 손가락으로 통기며 침을 입 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한 뒤 삼키며 옷소매로 휘양을 닦아 먼지 털고 털 무늬를 일으키며, 세수할 땐 주먹쥐고 버르듯이 하지 말고, 냄새 없게 이 잘 닦고, 긴소리로 종을 부르며,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듯이 걸어야 한다. ...⁵⁶⁾

양반의 형식적인 節目들을 강요하며 무위도식하는 양반계급의 모습을 일상 어투로 풍자하고 있다.

이웃 소로 먼저 갈고, 일꾼 뺏어 김을 매도 누가 나를 거역하리. 네 놈 코에 젓물 붓고, 상투 잡아 도리질하고 귀알수염 다 뽑아도, 감히 원망없느니라⁵⁷⁾

55) 이가원, 앞의 책, p.297. 남성에 대한 불신임과 반항으로 보았다.

황폐강, 앞의 책, 1978. 가난에 지쳐 악박에 안 남은 여인이 <양반전>에 나와 있다.

56) 앞의 책, 叩齒彈腦 細嗽嚙津 袖刷毳冠 拂塵生波 盥無擦拳 漱口無過 長聲喚婢 緩步曳履.

57) 앞의 책, 先耕隣牛 借耘里亡民 孰敢慢我 灰灌汝鼻 暈髻汰鬢 無敢怨咨.

제2문권에 제시한 양반의 모습인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큰소리치는 양반의 만행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연암은 양반의 실생활을 거침없이 풍자하되 고답적인 한자어가 아닌 툭툭 튀듯 생동하는 일상어의 표출을 통해 누구보다 현실을 생경하게 그려내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또 돈을 주고 양반의 지위를 사려 했던 한 평민이 양반이 지켜야 할 문건을 보고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이요. 장차 나로 하여금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 하며 머리를 흔들고 가서는, 충신토록 다시 양반의 일을 입에 내지 않았다.”⁵⁸⁾라는 마지막 대목은 당시의 양반=도적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킴으로써 허위에 찬 지배계층의 뒤틀린 모습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다. 명분과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양반의 모습보다 평민인 자신의 삶이 참되다며 평민을 고집하겠다는 평민의 의지 표출은 계급의 가치보다 참된 삶이 중요하다는 진실성과 바르게 사는 평민의 모습을 우위에 두는 연암의 서민 중심적 사고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양반전>에서는 지배계층의 허위와 무능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인간상 제시라는 개혁적 성향을 표출하고 있지만 연암이 갖고 있는 사상의 한계점도 찾아 볼 수 있다.

연암의 작품 대다수가 당대 선비들의 위선과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일관되지만, 사·농·공·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士⁵⁹⁾임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연암의 이러한 사상은 <原士>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를 士라 하는 것은 대부를 높이기 위해서이며, 군자를 士라 하는 것은 군자를 어질게 여겨서이며, 군졸을 士라 하는 것은 수가 많고 사람마다 모두 다 士임을 밝히기 위해서이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士라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천하에 공평함을 보이기 위한 까닭이다.⁶⁰⁾

58) 앞의 책, 已之已之 孟浪哉 將使我爲盜耶 掉頭而去 終身不復言兩班之事.

59) 앞의 책, 維天生民, 其民維四, 四民之中, 最貴者士.

60) <원사>, 『연암집』, 大夫曰士, 大夫尊之也, 君子曰士, 君子賢之也, 軍卒曰士, 衆之也, 所以明人人而士也, 執法曰士, 獨之也, 所以示公於天下也.

그는 사대부계층의 허위와 무능을 풍자하고 있지만 士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대부 계층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사·농·공·상의 신분적 질서를 유지 하면서 그 담당계층들이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할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연암의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양반을 비판하지만 양반이라는 계층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는, 그러다 보니 민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연암이 주장하는 利用厚生의 실천적 학문과 해방은 어느 측면에서 논리 추구에 머물러 있는 성향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또 봉건적인 신분계급을 부정하지만 士로서의 특권의식과 물질적 기득권을 비워버리고 민중들과 연대한 민중적 지식으로 까지 발전하지 못한 연암이 갖는 사상적 한계⁶¹⁾라는 김영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연암은 기존 체제가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하고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이 있는 직분에 나아가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四民은 자기의 재능과 직분에 충실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계층에 대한 한계를 두고 이를 한정하는 것이 종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제시와 동시에 기존의 유교적 세계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사상의 한계의 반영이라 하겠다.

2) 양반의 이중성이 나타난 <許生傳> <虎叱>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당시 사회 구석구석을 비판했던 연암은 <허생전>을 통해 비판의 대상을 公的차원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 17세기 후반의 한양으로 무대를 옮겨 온 <허생전>은 당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 집권층의 무능력과 허위의식을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응책도 함께 시사하고 있다. <허생전>을 통해서 연암이 제시하는 시사책은 해외 유학 및 무역, 단발령, 백의 폐지론 등으로 연암의 거시적이고 실리적인

61) 김 영, 『조선후기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p.208.

현실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허생은 목적골에서 살았다. 바로 남산 밑까지 곧추 닿고 보면 거기 우물턱 위에 늙은 살구나무가 섰고 바람비를 가리지 못하는 두어 칸 초가집이 이 나무를 향하여 사립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 집 주인인 허생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그의 안해는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糊口를 하였다.⁶²⁾(중략)

“내가 아직 글을 못 다 읽었소.”

“그러면 장안바치질이나 해 보지요?”

“장안바치질은 본디 배운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장사라도 해야지요”

“딱한 말이오. 밑천 없는 장사를 어떻게 하겠소?”⁶³⁾

<허생전>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허생은 선비로서 책 읽기를 즐겨하나 생계에는 도통 관심 없는 전형적인 양반이다. 아내가 남의 집 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연명하는데 허생의 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허생에게 돈을 벌어 오든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한다. 허생의 처가 무능력 양반계층이 보잘 것 없으며 가치없는 존재라 치부하고 있다. 연암은 허생 처의 입을 통해 당시 현실을 보여주며 참된 양반의 모습에 대해 재고토록 하고 있다.

아내의 비난에 돈을 벌기로 한 허생은 지금까지 공부한 책을 덮고 변승업을 찾아가 돈을 벌리는데, 이 대목에서 연암은 국내의 경제사정에 대해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정확히 꿰뚫고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연암은 또 당대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심한 혐오와 자의식에서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는데, 이상향은 <허생전>에서 공도로 표출된다. “꽃과 나무가 저 혼자 피고 나무열매, 풀 열매가 저 혼자 익고 사슴이 떼를 짓고 물고기가 놀라

62) 앞의 책, 許生居 墨積洞 直抵南山下 井上有古杏樹 柴扉向樹而開 草屋數間 不蔽風雨 然 許生 好讀書 妻爲人縫刺 以糊口.

63) 앞의 책, 吾讀書未熟 妻曰 不有工乎 生曰 工未素學 奈何.

지 않았습니니다⁶⁴⁾로 표현되는 공도는 낙원이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인 셈이다.

또 당신의 실존인물인 어영대장 ‘이완’을 만나 그에게 제시하는 시사삼책은 연암이 얼마나 국내외 정세에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와룡선생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천거하겠으니 임금께 삼고초려 할 것인지, 명나라 장졸의 후손들에게 충실의 딸을 시집보내고, 훈척권귀의 자산을 빼앗아 그들에게 줄 수 있는지, 薙髮과 胡服을 입혀서 사대부 집안의 인재들을 중국에 유학 보내고 평민들에게는 무역을 권장하여 부국의 방도를 꺾하고, 南蠻의 유물인 상투와 廣由白衣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연암의 시사삼책은 실리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인 이완은 당시 집권계층의 위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락하지 않는데, 이는 지배층들의 ‘애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명분에 급급한 위선적 양반의 모습인지를 기발하게 풍자하고 있다. 그러는 이완을 죽이려 하는 허생의 모습에서 연암이 당시의 지배계층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목숨에 위협을 느낀 이완은 도망을 가고 시사삼책을 제시하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현실을 실감하면서 허생은 문제만 제시한 채 결국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마치는데, 이는 연암이 꿈꾸는 대안이 현실과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암이 부르짖는 대안을 당대의 사회제도 속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연암은 <허생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몰락해버린 양반계층들이 부조리한 시대현실과 인간사회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으며, 직설적인 서술방법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내용을 기발하고도 비유적인 풍자를 통해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⁶⁵⁾

연암은 또 <허생전>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제일 먼저 경제적인 생활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는데, 연암의 인식이 실용적이며 현실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4) 앞의 책, 花木自開 草蕪自熟 麋鹿成群.

65) <답남직각철서>, 『연암집』, 知僕者中年以來 落拓潦倒 不自貴重以文爲戲.

“내가 처음 자네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온 후 먼저 살림살이부터 풍족하게 만든 뒤에 따로 글자도 만들고…”⁶⁶⁾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고 보고 백성이 편안한 다음에야 국가의 정책이니 제도를 논한다는 것인데, 백성의 민생고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의 것들을 차선으로 하는 현실인식은 부가 없는데 명분만 가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모습을 <허생전>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호질>은 지배계층의 이중적 성향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작품으로, ‘호랑이’를 등장시켜 호랑이의 입을 통해 양반의 모순적 이중적 성향을 낱낱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비판하는 작품이다.

북곽선생, 과부 동리자, 동리자의 다섯 아들들, 호랑이 등이 등장인물로 제시되는데, 주인공인 북곽선생과 호랑이의 대화를 통해 부정적인 양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정나라 어떤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한 선비가 있어 북곽선생이라고 불렀다. 나이마흔에 제 손으로 교열한 책이 만 권이나 되고 사서오경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권이나 되었다. 이래서 천자는 북곽선생이 이룩한 것이 놀랍다고 칭찬을하고 제후들까지도 북곽선생이라면 한번 찾아보기가 원이었다.…(중략) 동리자가 북곽선생에게 청하여,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그리워해 오던 차에 호젓한 이 밤 선생님의 글 읽는 목청을 한번 들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중략) “북곽 선생은 어진 분이래 예절로 보아 설마 과부의 문간에 발길을 들여놓을 리가 만무할 터요, 내가 일찍이 들으니 정나라 성문이 무너진 데 여우굴이 있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서 사람 두검을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필시 여우가 북곽 선생의 탈을 쓰고 나온 것이 틀림없구나!”⁶⁷⁾

66) <허생전>, 『연암집』, 吾始與汝等入比島 先富之 然後別造文字 …

지식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북곽선생은 겉으로는 주자적 세계관이 몸에 배인 지식층이지만 밤에는 과부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선비이다. 연암은 북곽선생의 구체적인 행동 묘사를 통해 당시의 지배계층에 만연된 말과 행실이 표리부동함을 폭로하고 있다.

정절로써 칭송받는 과부 동리자 역시 다섯 아들이 모두 ‘성이 다르다’고 비꼬는 것은 북곽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겉모습과는 다르다는 인간의 이중적 모습을 알리고 세상의 평판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음을 풍자하면서 당시의 부패한 도덕관념을 비웃고 있다.

어머니인 동리자가 밤에 북곽선생과 있는 것을 본 아들들은 ‘선비’로 명성있는 북곽이 밤에 어머니와 있을 리 없다며 북곽을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가 변신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도덕과 인격이 높다고 소문난 북곽이 하루아침에 ‘여우’같은 인물로 역전되는데, 뒤틀린 양반의 이중성이 연암의 기발한 풍자에 의해 순식간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이다.

“여기야말로 맛있는 고기가 숲속에 있습니다. 간은 어질고, 열은 의롭고, 충성을 안고, 결백을 품고, 풍류를 머리에 이고, 예절을 행하고, 입으로는 온갖 글을 다 외우고 세상에는 모르는 이치가 없다고 하여 이름인즉, ‘덕이 대단한 선비’라고 한답니다. 등판은 두드러지고 몸집은 뚱뚱하여 별의 별 맛을 다 갖추고 있소이다.”⁶⁷⁾

연암이 동물들의 입을 들어 인간의 위선적 성향을 나열하는 대목인데, 겉과 속이 다르고 잇속을 챙기며 보신성향이 강한 인간의 고기가 맛있는 ‘먹을거리’라며 인간을 비아냥하는 대목이다.

67) <호절>, 『연암집』, 鄭之有不屑宦之士曰‘北郭先生’行年四十 手自校書者萬卷 敷衍九經之義 更著書一萬五千卷 天子嘉其義 諸侯慕其名…(中略) 東里子請於北郭先生曰 久慕先生之德 今夜願聞先生讀書之聲 …(中略) 北郭先生 賢者也 吾聞鄭之城門 壞而有狐穴焉 吾聞狐老千年能幻而像人.

68) 앞의 책, 有肉在林 仁肝義膽 抱忠懷潔 戴樂履禮 口誦百家之言 心通萬物之理 名曰碩德之儒 背盡體胖 五味俱存.

또 창귀들과 호랑이가 저녁거리로 사람 잡아먹을 의논을 하면서 인간의 모습과 성향을 설명하는데, 동물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서 뽕무니를 못 감추는 인간’이고 醫員의 모습을 들어 ‘입에다 온갖 풀을 머금어서 살과 고기가 향기롭습니다’고 하며, 무당을 들어 ‘온갖 귀신에게 아양부리느라고 날마다 목욕재계하기 때문에 고기가 깨끗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골라서 잡수시지요.’하는 대목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맛있는 고기’라고 비유하는 연암의 풍자는 지배층에 반감을 가진 자에게는 자못 유쾌한 반면 인간의 부정적인 본질을 꼬집는 가시박힌 말이라고 하겠다.

그러다 ‘의원은 설익은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기 일쑤이고, 무당은 귀신을 속이고 인민들을 미혹시켜, 남의 목숨을 끊게 하니 못 사람들의 노여움이 뺏속까지 스며들어 金蠶으로 화하였으니,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뱉어 내는 호랑이의 말은 ‘맛있는 고깃감’이라는 표현보다 더더욱 인간의 실체를 초라하게 만드는 비유적 표현이다.

인간에 대한 ‘맛있다’ ‘먹을 것이 못된다’는 극단적 표현은 그러나 결국 인간의 이중성과 인간이 세운 체계가 허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⁹⁾는 동일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리자의 아들들에게 쫓기어 가는 북곽선생을 질타하며 “이놈의 선비, 에이 구린 녀름새야!”⁷⁰⁾ 라고 말하는 호랑이의 말에서 당대의 독자는 지배층이 갖는 이중적인 위선의 탈이 완벽하게 벗겨지는 모습을 실감하면서, 지배층에 대한 반감이 일순 명쾌하게 해소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연암만의 기발하고 고도의 풍자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69) 이종주, 앞의 책, p.466.

70) 박지원, 홍기문 엮음, 『나는 꼴꼴선생이라오』, 보리, 2004. p.142.

3. 중인층이 겪는 신분적 한계

1) 科擧에서 소외된 인물의 좌절감 <閔翁傳>

<민옹전>은 연암이 박지원이 21세 되던 1757년에 閔有信을 대상으로 한 傳記이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심하게 고생한 연암이 실존인물이었던 민옹을 만나 민옹의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어체를 통해 적적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민옹의 능력과 재주, 기벽 등을 소개하는 글이다.

민옹은 사람을 누리같이 여겼고 老子의 道를 배웠네 풍자와 골계로써 제멋대로 세상을 조롱하였으나 벽에 써서 스스로 분발한 것은 게으른 이들을 깨우칠 만하네 이에 민옹전을 짓는다.⁷¹⁾

<민옹전>을 짓는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인데, 민옹이 세상을 골계와 풍자로 비웃는 경우가 많아 불경스러움은 있으나 <주역> <노자>에 밝고 警句를 쓰며 읽지 않은 책이 없었던 민옹이었던 만큼 <민옹전>을 지어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는 말이다.

<민옹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민옹, 연암, 좌객들인데 짙막한 일화들과 사건전개가 도입-전개-결말 구조⁷²⁾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 전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①나의 병 고치기 ②글 외우기 내기 ③수수께끼식 문답(귀신, 신선, 장수, 소금, 불사약, 蝗蟲 등) ④은어(과자롱 사건)이다. 그 중 네 번째 이야기에서 민옹이 겪은 무반의 설움과 현실에 대한 풍자를 읽어 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71) <민옹전>, 『연암집』, 閔翁蝗人 學道猶龍 託諷滑稽 翫世不恭 書壁自憤 可警惰慵 於是述閔塲.

72) 도입단락은 민옹의 성격과 가계의 내력 등을 암시, 전개단락은 내가 민옹과 만난 동기와 민옹이 은어, 풍자, 골계로 세상을 비판, 결말단락은 민옹을 입전하게 된 동기와 창작연대를 나타내고 마지막에 사평에서는 민옹을 칭찬하고 있다.

누가 말하기를,
 “황해도는 황충이 들끓어 관에서 백성을 독려하여 잡느라 야단들입니다.” 하자, 웅이 “황충을 뭐 하려고 잡느냐?”하고 물었다. “이 벌레는 크기가 첫잡 잔 누에보다도 작으며,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털이 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을 명이라 하고 벧줄기에 기어오르는 것을 모라 하는데, 우리의 벼농사에 피해를 주므로 이를 멸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과문을 작정이지요”하니, 웅이 말하기를, “이런 작은 벌레들은 근심할 거리도 못 된다네. 내가 보기에 鐘樓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황충이요. 길이는 모두 7척 남짓이고, 머리는 까맣고 눈은 반짝거리고 입은 커서 주목이 들락날락할 정도인데, 웅얼웅얼 소리를 내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다니며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 해치우는 것이 이것들만 한 것이 없더군.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큰 바가지가 없어 아쉽게도 잡지를 못했네.”
 하였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정말로 이러한 벌레가 있는 줄 알고 크게 무서워하였다.⁷³⁾

민옹의 이야기로 민옹은 일년 농사를 망치는 메뚜기나 멸구보다 더 무서운 ‘황충’이 종로 네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양반이라 표현하고, 이들은 실제 곡식을 먹어 해치우는 멸구보다 더 민중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민옹은 또 그들을 잡고 싶지만 그럴만한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들어 한스럽다는 자조 섞인 풍자를 하고 있다.

민옹은 어렸을 때 영특하고 슬기로웠으며 책읽기를 좋아하였고 사회진출에도 불타는 의욕이 있었던 민옹이었지만⁷⁴⁾ 출신, 신분, 집안 내력 등이 이유가 되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나이 마흔 여덟에 出征한 李麟佐의 난에서 군공을 세우고 僉使라는 閑微한 관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이다.⁷⁵⁾ 여기서 민옹이 그의 나이 마흔까지 벼슬에 오르지 못하다 마흔 여덟에 僉使가 되었다는 점⁷⁶⁾을 주목한다

73) 앞의 책, 或言海西蝗官 督民捕之 翁問捕蝗何爲 曰是虫也 小於眠蚕 色斑而毛 飛則爲螟 緣則爲蝻 害我稼穡 號爲滅穀 故將捕而瘞之耳 翁曰 此小虫不足憂 吾見鍾樓墳道者皆蝗耳 長皆七尺餘 頭黔目熒 口大運拳 啞啞偶旅 蹠接尻連. 損稼殘穀 無如是曹 我欲捕之 恨無大匏 左右皆大恐 若真有是虫然.

74) 앞의 책, 翁幼警悟總合 獨慕古人奇節僞跡 慷慨發憤 每讀其一傳 未嘗不歎息泣下也.

75) 앞의 책, 閔翁者 南陽人也 戊甲軍興 從征功授僉使 後家居 遂不復仕.

면 당시의 무반의 벼슬은 재주와 포부보다 신분과 출신내력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연암은 민옹이 늦게나마 벼슬에 올랐지만 역시 자신의 뜻을 펼만한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고 그럴 힘이 없는 민옹의 모습 속에서 평생 武班이라는 계급에 만족해야 하는 한스러움과 그의 두 아들 역시 武科에 올랐으나 아직 벼슬하지 못한 점을 들어 조선 말기의 벼슬길이 ‘재주’와 ‘능력’민으로는 선발되기 어려운 잘못된 ‘인재 등용’의 정책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부조리가 보이는 <金神仙傳> <虞裳傳>

<김신선전>은 연암의 작품 중 유일한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이야기는 연암이 이십 세를 전후로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장안에 들리는 소문 중에 신선의 方技가 기이한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신선을 추적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당시 신선으로 알려진 인물 김홍기를 만나기 위해 연암은 여러 경로를 모색하고 김홍기가 거처한다는 암자에까지 가보았지만 결국 만남에 실패하고 신선에 대해 ‘세상에서 우울히 뜻을 펴지 못한 자’라며 신선에 대한 그에 의견을 짚막하게 덧붙이고 있다.

홍기는 대은이라 노니는데 숨었다오 세상이야 맑건 흐리건 청을 잃지 않았으며 남을 해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았네 이에 김신선전을 짓는다.⁷⁷⁾

세인들이 홍기를 일컬어 신선이라 하지만 신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연암은 그를 흐리고 탁한 세상이 싫어 홀로 淸淸하고자 은둔하는 ‘隱者’라 칭한다는 대목이다. 신선사상을 믿지 않는 연암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세상일에 우울한 자’가 ‘신선’이라는 해석이 새로운데, 연암은 <김신선전>을 통

76) 박태상,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p.115.

77) <김신선전>, <자서>, 『연암집』, 弘基大隱酒 隱於遊 淸濁無失 不伎不求 於是述金神仙.

해 자신 역시 김홍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뜻이 없어 우울함과 비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고 거기에서 싹튼 우울증은 김홍기의 마음과 다를 바 없어 연암 자신 또한 신선의 상태⁷⁸⁾로 보고 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싫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연암 자신의 우울함을 일시나마 美化하며 安慰하려는 연암의 심리가 묻어나는 부분이다.

김홍기라는 인물을 기록한 책은 <김신선전> 외에 이덕무의 <靑莊館全書> 권 50, <耳目口心書> 권 3과 조희룡의 <壺山外史>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김홍기는 수련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나이 10으로 소개되어 있다.⁷⁹⁾ 그는 산수에 노니는 것을 좋아하여 집에 있는 날이 며칠 안 되었고, 금강산을 두 번 다녀왔는데 한번은 금강산에 들어갔다 수개월 후에 돌아왔다고 기록돼 있고, 한번은 지행을 겸비하고 금강산에 머무는 尙顏禪師와 교유하고 싶었으나 집이 가난한데다 처자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연암은 이 기록과 일화를 근거로 <김신선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김신선전>은 특히 실존했던 인물 김홍기에 관한 민간설화를 근거로 소설화하였다는 점과 신선이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뜻을 펼치지 못해 불만과 고충을 갖던 사람들이 마음에서 찾아내는 대리출구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현실 속에서 신선을 발견하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것이 신선이라는 연암의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상전>은 실제 인물인 李彥璵(1740~1766)을 다룬 작품이다. 우상은 문예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역관이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당대의 인물이기도 하다.

78) 이종주, 앞의 책, p.188.

79) 이덕무, 『국영청장관전서 Ⅷ』, 민족문화추진회, 1980, p.131.

박기석, 앞의 책, p.71. 조희룡의 『壺山外史』에 실린 ‘金可紀 설화’도 ‘김홍기 설화’와 유사 설화구조라고 보았다.

아름다운 저 우상은 옛 문장에 힘을 썼네 서울에서 사라진 禮를 시골에서 구한다더니
생애는 짧아도 그 이름 영원하리 이에 우상전을 짓는다.⁸⁰⁾

연암은 ‘자서’를 통해 우상이라는 인물이 국내에서는 일개 ‘통역관’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그의 능력이 미처 알려질 길이 없다가 일본에 가서 하루아침에 그의 이름이 해외만리까지 미쳐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그의 재주를 기리기 위해 <우상전>을 짓는다고 동기를 밝히고 있다.

우상은 일개 역관에 불과한 자로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소문이 제 마을 밖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벼슬아치들이 그의 얼굴조차 몰랐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름이 바다 밖 만리의 나라에 드날리고, 몸소 곤어와 악어의 소굴까지 뒤졌으며, 숨씨는 햇빛과 달빛으로 씻은 듯 환히 빛났고, 기개는 무지개와 신기루에 닿을 듯이 뻗어났다.⁸¹⁾

연암은 <우상전>을 통해 당시의 조선사회가 재주와 능력보다도 ‘집안’과 ‘계급’을 중시하여 출신성분이 좋지 못한 자는 제아무리 역량이 있다한들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과 잘못된 인재등용의 맹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상전>에는 한국인의 밀수행위와 그들을 지켜보며 공경하는 척 하나 내심 비웃는 일본인의 이중성, 임관 후에 일본에 다녀온 무능한 사신 등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⁸²⁾ 즉 <우상전>은 신분상의 이유로 庶類들이 뜻을 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사회적 부조리를 조목조목 들어 비판한 작품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연암소설 10편을 분석해보았다. 작가의 창작동기 속에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찾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80) <김신선전>, 『연암집』, 變彼虞裳 力古文章 禮失求野 亨短流長 於是述虞裳.

81) 앞의 책, 虞裳一譯官 居國中 聲譽不出里閭 衣冠不識面目 一朝震耀海外萬里之國 新傾側鯢鯨龍鼉之家 手沐日月 氣薄虹蜃.

82) 앞의 책, 其陽浮慕尊如此而象譯持虎豹貂鼠人蔘諸禁物 潛貨璣珠寶刀 馴儉機利 殉財賄 倭外謬爲恭敬 不服衣冠慕之.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가 연암의 문학에서 일관되게 표출되는 ‘현실주의’와 ‘사실주의’이다.

연암은 당대 현실에 대해 철저하고도 예리한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주의’와 ‘사실주의’는 우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현실이라는 실상의 모습에서 소재를 찾는다는 점, 그리고 고답적인 한자의 고문체가 아닌 서민의 일상생활 용어 그대로를 구사하는 구어체 문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연유로는 연암이 가진 성향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시각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고, 피상적이고 현학적인 허상보다는 실리적이고 실재를 중시했던 그의 현실적이고 실리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민옹전>의 민옹, <예덕선생전>의 엄행수, <우상전>의 우상, <열녀함양박씨전>의 열녀 박씨 등이 모두 당시의 실존 인물이고 보면, 연암은 실존 인물을 소설 속으로 끌어 와 재구성하면서 당대의 취약하고 모순적인 사회제도와 양반사회를 실감나고 명쾌하게 비판해 내고 있다.

둘째로 연암 문학사상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기반인 ‘인본주의’를 들 수 있겠다. 첫째를 포함해 둘째의 성향 모두 연암이 어려서부터 부리던 시종들과 어울리며 구별과 편견없이 사람을 접하게 했던 조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덕분이라 생각된다. 서민들의 삶에 밀착해서 그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연암이기에 성인이 되면서 꺾박받고 천대받는 서민에 비추어 양반의 무위도식과 부정부패를 실감한 연암은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이를 토로하기 위해 연암은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빌려 양반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쏟아낸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태어난 작품 중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은 지배계층에 대한 적나라한 실상을 파헤치며 안위적이며 위선적인 그들의 모순을 꼬집고 있다.

셋째가 ‘서민중심적 사고’인데, 이는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 위선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양반사회의 이중성에 비취 서민의 삶은 오히려 건

전하고 욕심부리지 않으며 진실하다는 평이다. 연암은 <마장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열녀함양박씨전>에서 각각 걸인들과 똥을 푸는 직업인, 박씨부인을 내세우며 그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의 자세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인간형을 창출해 내고 있다.

또 <김신선전> <우상전> <민옹전>을 통해 재주와 능력이 출중하나 중인계급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를 들어 출세길이 차단된 중인계층의 서러움을 토로하고 당시의 잘못된 인재등용에 대한 따끔한 일침도 놓치지 않는다.

넷째 ‘민족주의적 성향’이다. 이는 현실주의 시각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연암이 강조했던 ‘朝鮮之風’의 모습이라는 데서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암의 문학에서 제시되는 배경과 인물, 그리고 사건의 전개는 모두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지명하나 인물하나, 대화 어투하나에서도 오직 조선의 것을 고수하려 했던 것은 연암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조선지풍’을 대변하고 있다.

일체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을 탐하지 않았던 연암이기에 일면 세상을 등진 듯하나 옹골진 그의 문학 속에는 당시의 조선의 모습이 활활 살아 움직이는 모습처럼 선연하게 재현되고 있다. 때로는 장자처럼, 때로는 걸인처럼, 때로는 시대의 스승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던 연암의 모습 속에서 당대를 사는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바르고 분명한 좌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IV. 연암소설의 사상적 인식과 표현

연암소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실주의에 민족주의 사상을 반영하여 이를 언어적 기교인 풍자와 해학, 비유적 관념으로 풀어내고 있다. 연암이 가진 객관적이고 실리적인 독특한 시각이 참신성과 접목되며 빛을 발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연암의 문학사상은 당대 현실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상상적 허구를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작가의 참신성과 주체의식이 투영된 인식론을 바탕으로 함축적인 표현을 하였던 것이다.

위의 창작 과정은 연암의 인식과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의미와 내용을 맹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표현을 통하여 연암의 인식론이 당대 현실을 분별하고 판단한 구조적 통일체로 보며,⁸³⁾ 이 표현은 그의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적 기교를 형상화하는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당대 주자학적 인식을 가진 작가와 달리 연암은 자신의 문학사상을 반영하여 소설을 지어냈다. 연암의 작품은 종래의 작품과 분명차이가 있다. 기존작가들을 눈앞에 펼쳐진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경전의 古語體로 된 어귀를 소재로 삼거나, 다른 작품들을 모방 및 답습하여 작가의 개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직 표방되는 보편적 절대미만 작품만을 썼다. 이는 仁과 禮를 중시한 주자학적 사상을 토대로 인간이 陶冶에 이르도록 그려냈다. 결국 표현적인 면만 강조하고, 오직 고문을 답습하여 중세적 관점의 고정된 시각만으로 썼던 것이다.

연암은 종래의 문학이 개성이 없고 문학적 현실반영이 되지 않으며 작가의 인식이 전형화되어 오로지 문학에만 머무는 한계를 자신의 소설에 문학사상을 통하여 드러냈다. 또 연암은 자신의 문학사상을 문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문학·정치·사회·철학 등 모든 문화전반에 스며들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83) 이도흠, 『화쟁 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 출판부, 1999. p.92.

1. 연암소설의 인식론

연암소설의 인식론은 방법론적 인식과 과정적 인식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는 기존의 유교적 사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방법론적 인식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사물의 참모습의 과정적 인식과 함께 바라보며 그의 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을 형성하였다.

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다.

첫째, 그는 사물을 고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변화를 겪는 방법적 인식을 주장했다. 당시 지배계층들은 종래의 사물을 고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를 모방 및 답습하여 피지배계층과 분절적으로 바라보았다. 연암은 그의 소설을 통하여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의 삶을 비교하여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배계층의 부당성을 깨우쳤다. 특히 그는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아간다면 조선은 발전이 없다고 여기고 항상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자학적 세계관을 지닌 ‘성리학’은 경전에서 소재를 찾고 옛 문헌들의 작품들을 모방하는 것을 수신제가의 원칙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리학이 인간을 개인적으로 원하는 욕망을 절제, 억압하며 참신한 인간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다.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과의 상호적 관계없이 그들만의 이익을 쫓아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것이다. 연암은 모든 계층들이 하나 되어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며 利用厚生的 삶을 살기 위해선 항상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떤 사람이 가시밭을 헤치고 밭두렁을 가로질러서, 갓이 걸리고 신이 터지며 고꾸라지고 혈떡이며 온다면 자네는 그 사람을 어떻다고 말하겠는가? 자네는 응당 그는 반드시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하리라. 내가 또 물겠네.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어떤 이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옆길로 새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네는 의당 이렇게 답하리라. 그는 반드시 지름길을 좋아해서 빨리 가고자하는 사람이거나, 험한 길을 가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반드시 남이 일러주는 것을 잘못 들은 사람일 것

이다. 틀렸네. 이것은 길을 나선 다음에 헛갈리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문을 나서기 전에 이미 사심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네.⁸⁴⁾

위의 글에서 그는 ‘길’을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함을 선입견으로 보았다. 이는 그 당대의 보편적 이념을 말하여 중세적 지배질서를 강화하려는 보수적 입장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가고 하는 길을 가고자 하나 주자학적 세계관 때문에 못가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인간이 자유로워야하며 결코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당대 지배계층들은 폐쇄적 사고방식을 신분제도로 형성하여 인간관계의 경직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선형적 가치체계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 연암은 당대 시대를 보는 인식을 갈등, 사회비판, 극복·대화 등을 그의 소설에 활용하여 기존의 인식적 틀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보았다.

연암은 상대주의 관점을 감각이 아닌 마음속으로 존재한다고 보며 마음의 주체 심령으로 보았다. 즉 심령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⁸⁵⁾ 이를 위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각자체가 인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명심을 요구되어졌다고 본다. 이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에 대한 세계관이 생성되어 기존의 관념과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인식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주관적 의식인 寫意를 말한다 하겠다.

그는 상대적 인식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과 직접적 언어를 통하여 사실적 묘사를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燕行하는 동안 청의 벽돌과 기와, 똥 부스러기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고, 방언·비속어의 과감한 사용 등에서 연암이 얼마나 기존의 고정적 관념들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종래의 사회는 의고적 성격을 가지고 한·당의 시를 모방하고 고정적 신념으로 바라

84) <답임형오론원도서>, 『연암집』, 有人焉 披荆棘穿阡陌 冒其冠而決其屨 顛倒喘汗 子將謂何若人矣 子將應之曰 是必失路人也 吾且問之 同是行也 或就其正路 或尋其傍峽者 何也 子將應之曰 是必好逕而欲速者也 是必行險而 傲行者也 不然 則是必誤聽人指導者也 曰否此非在路而遂迷也 其出門之前 已有私意者 先之也.

85) <맹소관기>, 『연암집』, 目之於色 同得也 至於光也, 輝也습也 有視之而不能觀者 有觀之而不能察者 有察之而不能形諸口者, 非目之不同也 心靈有通塞焉故也.

보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겼다. 이는 옛 것을 본받는 것으로서 法古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이 창제하는 창신을 상대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인식하였다.⁸⁶⁾ 필자는 이를 이렇게 보고자한다. 글자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문장은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가 투영된다고 본다. 즉 연암은 자기만의 주체적 세계관 투영 여부를 중요시 여긴 것이다.

둘째, 기존의 체계를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며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적 인식을 주장했다.

연암은 사물의 실체를 기존의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자네는 물건을 찾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앞을 바라보면 뒤는 놓치게 되고 왼편을 돌아보면 오른쪽을 잃게 되네. 왜 그런가? 방 가운데 앉아 있으며 몸과 물건은 서로 가리게 되고 눈과 허공은 맞닿아버리기 때문일세. 차라리 자네 몸을 방밖에 두고 창구멍을 뚫고 엿보는 것이 제일 낫네. 그렇게 한 눈을 감고 한 눈으로 응시하면 방안의 물건을 죄다 훑어볼 수 있다네⁸⁷⁾

이 글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물의 전체적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인지한 부분이 전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 상대편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한다고 보았다. 사물의 전체적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매몰되고 맹목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일정한 비판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종래 성리학이 추구하는 인식은 조선의 미래와는 대조적 거리감을 두고 있다. 연암은 그의 소설을 통하여 현실적 비판을 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연암은 ‘사람과 사물을 하나로 보는 낙론의 주장에 동조했다. 종래에는 사람과 사물이 생겨나 처음에

86) <곡정집서>, 『연암집』, 夫然則如之何其可也? 吾將奈何? 無其已乎! 噫! 法古者病泥跡 刪新者患不經 苟能法古而知變, 刪新而能典 今之文猶古之文也.

87) <소완정기>, 「열하일기」, 子未見夫索物者乎 瞻前則失後 顧左則遺右 何則 坐在室中 身與物相掩 眼與空相逼 故爾莫若身處室外 穴牖而窺.

그 구별이 없는 것이지만 사람도 ‘남’이고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사물이라고 하였다.⁸⁸⁾ 모든 사물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본래의 모습으로 본다면 다 동일하다고 보았지만 연암은 상대적 사고를 고려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인물성동론은 사람과 사물이 같다는 주장으로 심성론적 성격을 깊이 안 들어가고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적극적 利用을 제기하고, 厚生的 觀點에서 경제 발전까지 나아가게 된다.

덧붙혀 말하면 새롭게 열린 인식을 받아들이며 기존의 유교사회체제의 인식과 비교할 수 있다. 그는 조선사회의 제도개혁을 주장하며 현실사회를 비판하였다. 양반의 부정부패의 사회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하였다. 기존의 지배계층들은 명분만을 찾고 성리학의 주자학적 요소인 공리공론과 무위도식만을 추구하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여겼다. 연암은 새롭고 열린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농업의 이치를 밝히고 상업을 일으키며 수공업 장려를 계급에 상관 없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燕行을 다니면서 청나라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하는 동안 조선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열린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연암은 그 중 중국의 벽돌과 기와를 특히 눈여겨보았다.

중국의 벽돌과 기와는 간편하고 견고하여 중국인의 기술을 찬탄해 마지않았다.⁸⁹⁾ 하지만 조선은 이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낙후했다. 그리고 조선의 유통수단 미흡을 문제점으로 삼으며, 중국과 같은 수레가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는 이런 새로운 청 문물을 조선에 결부시켜 새롭게 조선의 경제를 발전하자는 利用厚生的 인식을 연암소설에 소개하였다.

청조문물의 우수성에 대해 연암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조선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소망하였다. 연암의 이런 희망은 燕行을 다녀와서 썼던 「열

88) <애오려기>, 『연암집』, 余謂仁山曰 夫民物之生也 固未始自別 則人與我皆物也 一朝將己而對彼 稱吾而異之 於是乎 天下之中 始乃紛然而自謂 事事而稱吾 則已不勝其私焉.

89) <감경잡식>, 「열하일기」, … 可見其(淸人)製作之精一矣 故民間壽常制作 能相視效, 規模大同 德保所稱 大國心法最不可當者 正在此等也.

하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대부의 춘주존양을 논하는 자가, 연이어 큰 뜻을 세움으로써 백년을 하루같이 하니 가히 성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존조는 그대로 존주일 뿐이며 夷狄은 그대로 이적일 뿐이다. 중화의 성곽·궁실·인민은 진실로 그대로 있으며, 正德·利用·厚生의 도구도 진실로 그대로이다. 崔·廬·王·謝의 씨족도 폐하지 않았고 周·張·程·朱의 학문도 없이지 않았으며, 사대 이래의 성제·명왕과 한·당·송·명의 좋은 제도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 오랑캐는 진실로 중국이 가히 이롭고 족히 오래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아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는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인 양 그에 응거하고 있다. 천하를 영위하는 자가 진실로 民에 이롭게 하고 나라를 후하게 하려면 비록 그 법이 혹시 이적에서 나왔더라도 장차 그것을 취하여 본받을 것인데, 하물며 삼대 이후 성제·명왕과 한·당·송·명의 고유한 옛 전범임에라, 성인이 「춘추」를 지으심은 진실로 존화양이를 위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夷狄이 중국을 어지럽힘을 분하게 여겨 중화의 것으로 가히 높일 만한 것까지 함께 물리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금 사람이 참으로 오랑캐를 물리치고자 하면, 중화의 남아있는 제도를 모두 배워 우리 풍속의 우둔하고 융통성 없는 면모를 변하게 하는 일만 한 것이 없으니, 耕·蠶·陶·冶로부터 通功·惠商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⁹⁰⁾

연암의 인식론은 열여섯에 이보천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는 이보천과 이양천에게 문장을 배웠고 중국의 서적 등을 접하였다. 특히 연암은 중국의 문학학파인 공안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이덕무의 <이목구심서> <선굴당농소>가 이에 해당한다.⁹¹⁾ 그리고 연암이

90) <일신수필>, 「열하일기」, 我東士大夫之爲春秋存養之論者 磊落相望 百年如一日 可謂感矣 然而尊周自尊周也 夷狄自夷狄也 中華地城郭官室人民 固自在也 正德利用厚生之具 固自如也 崔廬王謝之氏族 固不廢也 周張程朱之學問 固未泯也 三代以降 聖帝明王 漢唐宋明之良法美制 固不變也 彼胡虜者 誠知中國之可利 而足以久享 則至於奪而據之 若固有之 爲天下者 苟利於民 而厚於國 雖其法之或出於夷狄 固將取而則之 而況三代以降 聖帝明王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 聖人之作春秋 固爲尊華而攘夷 然未聞憤夷狄之猾夏 竝與中華可尊之實 而攘之也 故 今之人 誠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椎魯 自耕蠶陶冶 以至通工惠商 莫不學諺.

91) 강명관, 앞의 책, p.130.

바라보는 상대주의적 관점과 같은 원리이다. 그는 고전의 언어와 인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언어와 세계관으로 접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1) 사실주의 사상

앞에서 살펴본 인식론을 토대로 연암은 그의 작품 속에 사실주의 사상을 형성하였다. 연암의 문학사상은 眞을 추구하는 것이었다.⁹²⁾ 간결하고 소박하게 쓰면서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사실 있는 그대로 나타내되, 사회적 문제점을 제시하여 시정되기를 원했다.

도끼를 휘둘러서 공중을 치기보다 바늘을 가지고 눈동자를 찔러야 한다.⁹³⁾

연암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지닌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현실을 비판했다. 유교적 관념을 표현한 당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색다른다고 볼 수 있다.

말이란 반드시 큰 것만 말 할 필요는 없다 한 푼, 한毫, 한釐 한 것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니, 기왓장이나 조약돌이라고만 해서 어찌 버릴 것인가? 그런 까닭에 禱杵은 모진 짐승이지만 초나라의 역사책을 그 이름을 빌려서 썼고, 사람을 때려 죽여 묻는 흉악한 도적놈이라도 사마천이나 반고는 이를 서술하였으니, 글을 짓는 이는 오직 진실해야 할 따름이다.⁹⁴⁾

종래에는 하찮은 것, 아주 작은 것은 무시하고 주자학적 세계관을 기준으로 모질

92) 박기석, 앞의 책, pp.27~37.

93) <여중일> 之三, <영대정인목> 『연암집』, 揮斧擊空 不如持鍼擬瞳.

94) <맹작관문고> 자서, 『연암집』, 文以寫意 則止而已矣 彼臨題擘操毫 忽思古語 強覓經旨 假意謹嚴 逐字矜莊者 譬如招工寫眞 更容貌而前也 目視不轉 衣紋如拭 失基常度 雖良畫史 難得其眞 爲文者亦何異於是哉.

고 혐오스러운 대상들을 배제해 버렸다. 하지만 연암은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뜻과 글자로 있는 그대로 쓰며 사물에 대해 하찮은 것도 놓치지 않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잘하는 사람이면 병사를 알 것이다. 글자를 비유하자면 병졸이고, 뜻은 장수이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적국이고, 고사라고 하는 것은 전장이며 성루이다. 글자를 묶어서 구를 만들고 구를 모아서 집을 이루는 것은 대오행진과 같고, 운으로써 소리를 내고로써 빛을 내는 것은 마치 군대가 金鼓로 소리를 내고 族旗로 빛을 내는 것과 같다. 조용이라고 하는 것은 봉황대이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기마 유격대이며, 억양·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사살하고 결사적으로 쳐부수어 양쪽으로 갈라지게 해 놓고, 나아가 죽이는 방법이고 破題하여서 결속하는 것은 성에 먼저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수단이다.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노인네는 사로잡지 않고 남겨두는 전범처럼 하는 것이고, 여음이 있게 하는 것은 출전했다가 개선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여운을 지니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⁹⁵⁾

그는 사실의 모습을 거것으로 꾸며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큰 것, 근엄한 것만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소한 것, 혐오스러운 것까지 소재로 하여 쓰는 것만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글은 생생한 장면이 생명이고 이를 전달을 위해서 사실 그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작가의 주체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전쟁터로 표현할 정도로 중요시 여겼다. 결국 연암은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이 투영된 고도의 함축된 뜻을 문학에 반영하고자 했다.⁹⁶⁾

연암은 종래 문학의 문제점을 古文의 모방이라고 보았다. 이의 한계를 <낙천관집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옛글을 모방하여 글을 지는 것은 거울에 모양을 비취 보는 것과 같으니 비슷하다 말할

95) <소단적치인>, 『연암집』, 박영철 본, 경희출판사, 1996, 영인본. p.25.

96) 차용주, 『연암연구』, 계명대 출판부, 1984, p.440.

수 있을까? 그러나 좌우가 상반되는데 어떻게 비슷함을 얻겠는가. …(중략) 무릇 어찌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구하는 것은 진이 아니다. 천하에 이른바 상동자는 반드시 혹은 초하여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일컫는 것이고 또한 꺾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개 진이라는 말과 썩라는 말 사이에는 假와 眞가 그 중에 있는 것이다.⁹⁷⁾

그는 고문을 모방하는 한계를 거울에 비친 형상으로 비유하며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거짓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연암이 소설을 썼을 때 한쪽 계층에 치우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일반 선비, 집권 사대부, 실학자, 상인, 농부, 거간꾼, 역관 등 아주 다양한 계층을 보여준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연암은 봉건적 사상체제에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분명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난 인간의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미리 깨우쳤던 것이다. 이 사상은 그의 友인 이덕무가 연암의 작품을 보면서 진실적 작품이라고 파악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장들은 편마다 반드시 옛사람들의 지취들 파악 계승하였고 도습하거나 허위 지사를 늘어놓지 않았다. 글자마다 구절마다 사물의 정리에 절근하였고 대산의 진경을 묘사하였다. 때문에 매 편마다 읽을 만하고 사물의 묘소들을 곡진하게 묘사하였다.⁹⁸⁾

양반계층들은 항상 고문을 인습하고 허위적인 글귀를 감상하였다. 연암은 이를 비판하며 객관 현실의 외부형태를 자연 그대로 보는 점과 본질적인 특징을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특히 “문장은 반드시 옛사람들의 취지를 파악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데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연암이 참뜻, 진실을 왜 중요시 여겼는지 의문을 가졌다. 연암은 문장이

97) <낙천관집서>, 『연암집』, 倣古爲文 如鏡之照形 可謂似也歟 曰左右相反 惡得而似也 如水之寫形 可謂似也歟 曰本末倒見 惡得而似也 如影之隨形 可謂似也歟 曰午陽則侏儒僂僂 科日則龍伯防風 惡得而似也 如畫之描形可謂似也歟 曰行者不動 語者無聲 惡得而似也 曰然則終不可得而似歟 曰夫何求乎似也 求似者非眞也 天下之所謂相同者 必稱酷?難辨者 亦曰逼真 夫語眞語o之際 假與眞在其中矣.

98) <동암행상>, 『연암집』, 文章必求古人旨趣 不爲蹈襲 虛僞之辭 一字一句皆切近情理 模寫眞境 每篇可讀 曲盡其妙.

진실하지 않으면 참뜻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미적 표현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무조건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쓸 때 작가는 주체의식을 가지며, 객체 대상에 진실적 의미와 심미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입견으로 인한 인위적 가식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암의 사실주의 사상은 그의 문학수학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대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면서 그 글만 읽고 그 마음은 읽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항우본기』를 읽거든 각국의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의 전투를 구경하는 장면을 생각하라거나 적객열전을 읽거든 고점리가 출악기를 타는 마디를 생각하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늙은 서생의 진부한 말입니다. 이것이 실정 밑에서 손가락을 चु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니까? 어린아이가 나비를 잡는 광경을 보면 사마천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앞다리는 반쯤 꿇고 뒷다리는 비스듬히 뻗치면서 두 손가락으로 집게를 삼고 살살 들어가다가 잡을까 말까 할 때에 나비는 벌써 날아갔습니다. 사면을 돌아보나 사람이 없으니깐 썩 한 번 웃고 나서 부끄러운 듯하고 속이 상한 듯도 합니다. 이것이 사마천이 글을 짓고 앉았을 때입니다.⁹⁹⁾

그는 글을 쓰면서 사실과 느낌을 독자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그가 사실 중심으로 작품을 쓰는 성향이 사마천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연암이 참뜻, 진실을 왜 중요시 여겼는지 의문을 가졌다. 연암은 문장이 진실하지 않으면 참뜻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미적 표현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무조건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쓸 때 작가는 주체의식을 가지며, 객체 대상에 진실적 의미와 심미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입견으로 인한 인위적 가식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9) <답경지>, 『연암집』, 足下讀太史公 讀其書 未嘗讀其心耳 何也? 讀項羽思壁上觀戰讀刺客思漸離擊築 比老生陣談. 亦何異於廚下拾? 見小兒捕蝶可以得馬遷之心矣 前股半跪 後脚斜翹 丫之以前 手猶然疑 蝶則去矣 四顧無人 哦然而笑 將羞將怒 此馬遷著書時也.

나비를 잡는 장면은 연암의 문학사상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하나는 사마천의 창작동기와 자세를 비교한 점이다. 훌륭한 역사서를 집필하겠다는 사마천의 전일한 마음이며, 연암의 현실적 고뇌를 썼다는 작가의 정신을 볼 수 있다.¹⁰⁰⁾ 또 하나는 역사 인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한 점이다. 중국 통일과 진왕을 죽이는 것을 나비 잡는 아이처럼 일념으로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심경을 읽을 수 있다. 대상인물의 심경까지 간파하는 독서가 될 때, 작가의 인식론을 읽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덧붙혀 당대 사회생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식한 사내와 무식한 아낙네들의 천박한 웃음과 일생의 생활이란 어느 하나가 현실적이 아닌 게 없으며 눈이 시게 보고 귀가 아프게 들어서 신기할 게 없는...¹⁰¹⁾

연암은 흐트러진 사회의 일면을 아우러지게 현실을 그의 소설에 묘사하였다. 이를 읽는 이로 하여금 작가의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즉 작자와 독자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사실주의 사상이 하는 것이다. 사실주의 사상이 드러난 몇 가지 작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작품 <마장전>이다.

송옥, 조탑타, 장덕홍이 광통교 위에서 벼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탑타가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이러나 바가지를 두드리며 밥을 빌다가 포목전에 들렀더니, 포목을 사려고 가게로 올라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목을 골라 혀로 훑아 보기도 하고 공중에 비쳐보기도 하면서 값은 부르지 않고 주인에게 먼저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둘 다 포목은 잊어버린 채 모폭 장수는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며 구름이 나왔다고 흥얼대고, 사러 온 사람은 뒷짐을 지고 서 성대며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있더군요.”¹⁰²⁾

100) 김명호, 「연암문학과 사기」,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 비평사, 1983.

101) <순패서>, 『연암집』, 愚父愚婦 淺笑常茶無非則事 則目酸耳飮 城朝庸奴其固然也...

102) <마장전>, 『연암집』, 宋旭 趙關拖 張德弘 相與論交於廣通橋上, 關拖曰 吾朝日鼓瓢行焉, 入于布疋塵 有

이 대목은 서울 시정의 동남 다니는 거지의 모습, 물건을 흥정하는 장사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 추하고 혐오스러움을 뜻한다.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은 읽는 이가 작품을 대할 때 생생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품 <예덕선생전>이다.

저 엄행수란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못 견뎠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레 걷고 졸음이 오면 쿨쿨 자고 웃을 때는 곱곶 웃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네.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우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들어갈 때는 새 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얇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똥, 마굿간의 말똥, 외양간의 소똥, 해 위의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을 조옥인 양 긁어 가도 엄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여도 의로움에는 해가 되지 않으며, 욕심을 불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네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삼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꾸부정히 허리를 구부려 일에만 열중할 뿐...103)

서민 엄행수는 마을의 똥을 치우는 일을 한다. 연암은 작품 속에서 엄행수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배계층이 바라볼 때 하찮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문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자, 道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신성스러운 문학에 혐오스러운 용어를 쓰는 것을 우둔했을 것이다. 연암은 지배계층들이 더럽고 사소

登樓而賃布者 擇 擇布而砥之映空而視之, 價則在口, 讓其先呼 既而兩相忘布 布人忽然望遠山 謠其出雲 其人負手逍遙 壁上觀畫.

103) <예덕선생전>, 『연암집』, 彼嚴行首者 未嘗求知於吾, 吾常欲譽之 而不厭也 其飯也頓頓 其行也佻佻 其睡也昏昏 其笑也訶訶 其居也若愚 築土覆藁 而圭其竇 入則 蝦背 眼則狗喙 朝日, 熙熙然起, 荷畚入里中 除溷歲九月天雨霜 十月薄永 圍人餘乾 皂馬通 閑牛下 墻落鷄 狗鵝矢笠穉岑·左盤龍·翫月砂·白丁香 取之如珠玉, 不像於廉 獨專其利, 而不害於義 貧多 而務得 人不謂其不讓 予唾掌揮鋤 磬腰偃偃 若禽鳥之啄也...

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대로 문학에 표현했다.

셋째, 작품 <허생전>이다.

“그래! 소위 사대부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오랑캐 땅에 나서 자칭 사대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아래위 입성을 소복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 상복이 아닌가? 무엇이 예법이란 말인가? 변오기는 자신의 사사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자기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되복입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하여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머리칼 한 오리까지 아끼고 앞으로 장차 전장에 나가 말을 달리고 칼을 내두르고 창을 쓰고 돌을 날릴 궁리를 한다면서도 그놈의 넓은 소매를 그대로 두는 것이 소위 예법이라 말인가? 내가 세 가지 계책을 말하였으되 너는 한 가지도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고도 네 입으로 조정의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니, 대체 신임 받는 신하꼴이 이렇단 말인가! 이 죽일 놈 같으니!”¹⁰⁴⁾

연암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허생을 통하여 그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당대 조선 조정의 실상을 거짓 없이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중화의 중심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것을 집권계층들은 인정치 않고 명분론에만 중시하는 반면에 그는 당대 사실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소설로 형상화했다.

2) 민족주의 사상

사실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연암소설의 문학사상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 사상으로 연결되어 그 명맥을 이루게 된다. 연암은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무시하고 명목적으로 경전의 古文만을 있는 그 자체만으로 중시하였다. 이에 새로운

104) <허생전>, 『연암집』, 所謂士大夫, 是何等也, 產於彝狄之地 自稱曰, 士大夫, 豈非駭乎 衣袴純素 是有喪之服 會撮如錐 衣南蠻之椎結也 何謂禮法 樊於期 欲報私怨 而不惜其頭 武寧王 欲強其國 而不恥胡服 乃今欲爲大明復讎 而猶惜其一髮 乃今將馳馬擊劔刺鎗弓平弓飛石 而不變其廣袖 自以爲禮法乎 吾始三言, 汝無一可得而能者 自謂信臣 信臣固如是乎 是可斬也.

바람을 몰고 온 그는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중화주의적 중심의 사고에서 조선 중심적 사고로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암소설은 경세론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현실 비판을 시도하였다. 燕行을 갈 때도 조선의 낙후된 모습을 걱정하며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선진 문물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연암은 <영처고서>에 조선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무관은 조선 사람이다. 산천과 기후는 그 땅이 중국과는 다르고 언어와 요속은 그 세상이 한당이 아니다. 이런데도 만약 중국에서 그 법을 본뜨고 한당에서 그 체를 모방한다면 나는 다만 그 법이 높을수록 뜻은 실로 낮고 그체가 비슷할수록 말은 더욱 거짓됨을 볼 뿐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궁벽하나 천승의 나라요, 신라와 고구려가 비록 검박하나 민간에는 아름다운 풍속도 많은 즉 그 방언을 글자로 쓰고 그 민요를 운율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루고 진기가 발현 될 것이다. 좇아 모방하기를 일삼지 않고 남의 것을 빌어움이 없이 조용히 현재의 상태에서 삼라만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 생각건대 이시가 그렇다, 시경의 삼백 편은 조수와 초목의 이름이 아닌 것이 없고, 여항의 남녀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 만약에 성인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나서 여러 나라의 풍속을 보게 한다면 <영처고>를 살펴보면 삼한에서 나는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고, 우리나라 남녀의 성정도 관찰 할 수 있게 될 것이니, 비록 조선의 풍요라고 일컬어도 좋을 것이다.¹⁰⁵⁾

중국의 법·문화 등 모든 것을 주체성 없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타인과 같아지려는 행위 속에서 참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연암은 조선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법·문화 등을 버리고 남의 나라를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행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연암은 인정과 풍습을 노래하는

105) <영처고서>, 『연암집』, 今愜官朝鮮人也 山川風氣 地理中華 言語謠俗 世非漢唐 若乃效法於中華 襲體於漢唐 則吾徒見 其法益高而意實卑 體益似而言益偽耳 左海雖僻 國亦千乘 麗羅雖儉 民多美俗 則字其方言 韻其民謠 自然成章眞機發現 不事沿襲 無相假貸 從容現在 卽事森羅 性比詩爲然 嗚呼三百之篇無非鳥獸草木之名 不過閭巷男女至語 ... 若使聖人者作於諸夏 而觀風於列國也 攷諸嬰處之稿 而三韓之鳥獸草木多識其名矣 貊男濟婦之性情可以觀矣 雖爲朝鮮之風可也.

것이 조선의 언어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학에서 조선을 반영하는 것이 민족정신의 발로라고 보았다. 연암은 방언으로 표현된 고유어, 민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조선풍에 대한 자부심을 연암소설을 통하여 연암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제Ⅱ장에서 언급한 지배계층들이 주체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드리는 중국의 문화의 문풍에 의문이 간다. 이는 집권계층의 세력 확대 유지를 위한 것이며 그들은 명나라의 종주국이라는 명분론을 가지며 오랜 역사 동안 부정부패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이다.

연암은 옛 것을 모방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식의 전환만이 조선의 자주정신을 발현하고 연암의 민족주의 사상을 형상화하는 밑거름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소하고, 혐오스러운 소재를 연암소설로 표현하면서 꾸밈없이 그대로 쓴다면 쓸 수 있는 자체가 없다고 보았다. 우리말식 표현의 속담이나 격언 등을 표현하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는 사실주의 문학사상을 더 발전시킨 것이다. 연암은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해 우리 민족의 정신이 녹아들게 했다. 이 논리는 조선의 인정과 풍습을 고유의 언어와 운율을 바탕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학계에서는 조선 후기에 민족주의가 발생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¹⁰⁶⁾ 민족주의가 있으므로 실학파의 문학이 당대에 성행했으며 민족 내부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실학파가 없었다면 민족주의는 민족주의¹⁰⁷⁾라는 이념의 형태로 끝났을 것이다. 자기 문화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연암은 주장했다.

연암이 그의 소설 밑바탕에 민족주의를 문학사상으로 투영했다는 그 자체는 동아시아 세계의 시대적 배경을 관철했기 때문이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변화하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조선이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연암소설에 드러냈던 것이다. 그는 화이론을 극복하고 이를 대등한

106) 천관우,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구조: 재발견」, 『한국의 민족주의』, 진덕규 편, 한국일보사, 1975.

김호성, 「한국사상사적 맥락」, 『한국민족주의론』, 문우사, 1989.

107) 조선왕조의 보편적 경향에 대해 비판과 반발에서 나왔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존재로 가치질서에 대해 인식과 사상체계를 세웠다는 점이다. 당대 사람들은 화이론적 세계관이라는 중세적 가치와 논리를 모방 답습하였기에 연암의 안목을 당대 시대 흐름에 역행했던 것으로 보았다.

사대부들의 사유논리는 세계의 기원을 ‘理’에서 찾고 ‘천리’는 우주의 절대적 이념으로 자연만물과 인간사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왕권이나 현존질서는 천부적인 것으로서 도덕철학적 천리론을 철저히 고수하였다. 그리하여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어떠한 수정이나 혁신도 모두 ‘하늘의 도’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연암은 淸나라의 燕行에서 이를 반박을 할 만한 주장을 찾아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다음 글을 검토해 보자.

나는 말했다.

“하늘은 원래 모난 물건을 만들어 낸 것이 없습니다. 비록 모기다리와 벼룩 궁둥이와 빗방울, 눈물방울조차 안 둥근 물건이 없어 이제 보아 산과 물과 대지와 일월성신이 모두 하늘이 낸 것이지만 아직 모난 별들을 본적이 없은즉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저는 비록 서양 사람들의 저서는 보지 못했으나 일찍부터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습니다. …(중략)서양 사람들은 다만 땅이 둥글다고만 했고 지구가 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땅덩이가 둥글 수 있음은 알았으나 둥근 물건은 반드시 군다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망령된 생각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고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됩니다.”¹⁰⁸⁾

연암은 유럽에서 ‘지구가 둥글다’를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만나지 않는 조건하에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견해인 지전설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화이론을 주

108) <곡정필담>, 『연암집』, 鶴汀曰吾儒近世頗信地球之說 夫方圓動靜吾儒命脈 而泰西人亂之 先生何從也 余曰先生則何信, 鶴汀曰雖未能手拊六合之背頗信球圓 余曰天造無有方物 雖蚊腿蚤尻雨點涕唾 管不圓 今夫山河大地日月星宿 皆天小造未見方宿楞星 則可徵地球無疑 鄙人雖未見西人著說 嘗謂地球無疑 大抵其形則圓 其德則方 事功則動 性情則靜 若使太空安厝 比地不動不轉 塊然懸空則乃腐水死土 立見其朽爛潰散 亦安能久久停往 許多負載振河漢而不洩哉 今比地球面面開界種種附足 其頂天立地與阿無不同也 西人既定地爲球而獨不信球轉 是知地之能圓而不知圓者之必轉也 故鄙人妄意以爲地一轉爲一日 月一匝地爲一朔 日一匝地爲一歲.

장한 사대부들의 생각은 연암의 생각과는 반대의 입장이었다. ‘지구가 회전한다’는 것은 종래의 ‘하늘은 둥굴고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우주관에 대비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연암의 힘을 받아 조선의 우주관은 사상으로까지 형성하여 민족의 주체적 각성까지 필요를 증시했다.

다음 연암이 왜 이를 민족주의를 주장했는지를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는 여기서 말할 수 있다.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알을 잃어버렸는지는 똑똑히 고증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 성을 안시성이라 하는 데는 분명히 나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당서』에 본다면 안시성은 평양과의 거리가 5백리요, 봉황성은 왕검성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썼고, 지지에는 봉황성을 평양이라고 부른다 하였으니 이리고 보면 무엇을 표준삼아 이름을 붙였는지 모를 일이요, 또 지지에는 옛날 안시성은 개편현의 동북 70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고 개편현으로 부터 동으로 수암하까지 3백리요, 수암하로부터 동으로 2백리를 가면 봉황성이라고 했으니 이것으로 옛 평양이라 한다면 <당서>에서 말한 평양과 안시성의 거리가 약 5백리 쯤 된다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¹⁰⁹⁾

그는 조선이 주체성을 갖고 민족중심적 사고를 지양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어떤 면을 받아들이고 하는 능동적인 입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암소설에 나타난 민족주의 사상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극대화로 발전시킨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즉 역사와 문화를 전통으로 이어가는 연장선상에서 연암소설의 문학사상을 더욱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燕 행동안, 사물에 대한 본질적 비판의식이 연암의 눈을 통해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뭉쳐서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한걸음씩 발돋움하는 의지가 다음

109) <도강록>, <연암집>, 余曰 唐太宗 失目於安市 雖不可攷 蓋以此城爲安市 愚以爲非也 按唐書 安市城去平壤五百里 鳳凰城亦稱王儉城 地志 又以鳳凰城稱平壤 未知此何以名僞 又地志 古安市城 在蓋平縣東北七十里 自蓋平東至秀巖河 三百里 自秀巖河東至二百里 爲鳳凰城 若以此爲古平壤 則與唐書所稱五百理。

글에 담겨있다.

천하를 도모하는 사람이면 참으로 인민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 이 되는 것이면 비록 그 법이 혹은 이적한테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취하여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략)오늘날 사람들 이 진실로 양이하려면 중화의 유행을 모두 배워서 우리나라 풍속의 우둔함을 먼저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¹¹⁰⁾

연암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이를 민족에게 알려 주고 이를 행하게 하는 선도적 면모를 보였다. ‘항상 물은 흘러야’ 하듯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본다. 이 사상을 가진 연암이 당대 지배계층들이 복고주의에 빠져 모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혹은 그들의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연암은 양반계층들이 앵무새처럼 중국의 문학을 모방 및 답습하는 것이 참된 道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고 당대 현실상황을 바라보며 조선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소설작품에서 표현하였다.

아, 고문을 본받는 자는 字句에 얽매이는 것을 병으로 여기고 새로운 문장을 창안하는 자는 비리함에 떨어짐을 근심한다. 진실로 고문의 정신을 본받으면서 시의에 맞는 글을 짓고 새로운 문장을 지으면서도 전아한 글을 짓는다면 금문도 고문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¹¹¹⁾

그는 옛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관념보다는 변화를 주어 새로운 것을 만들도록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민족이 지닌 고유한 방언을 문자로 표

110) <일신수필>, 「열하일기」, 爲天下者 苟利於民而厚於國 雖其法之或出於夷狄 固將取而則之 而況三代以降 聖帝明王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 聖人之作春秋 固爲尊華而攘夷 然未聞憤夷狄之猾夏 並與中華可尊之實而攘之也 故 今之人 誠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稚魯 自耕蠶陶冶 以至通工惠商 莫不學焉 人十已百 先利吾民 使吾民制梃 而足以撻彼之堅甲利兵然後 謂中國無可觀可也.

111) <곡정필담>, 『연암집』, 噫 法古者 病泥跡 刪新者患不經 苟能法固而知變 刪新而能典 今之文猶古之文也.

현하고 거기에 민요조 운율을 조화시켰다. 즉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긴 결과로 보았다. 민족주의 사상이 잘 드러난 소설을 들어 살펴보겠다.

연암이 작품 <우장전>에 민족주의 사상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우상만은 한어의 통역관으로 수행하여 홀로 문장으로 일본에 큰 명성을 날렸다. 이에 일본의 이름난 중이나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기를 “운아 선생은 둘도 없는 국사이다.”라고 하였다.¹¹²⁾

일본인은 문장력 있는 이가 조선의 역관의 하찮은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지를 의아해하며 조선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말한다.

다음은 작품 <호질>에 민족주의 사상이 드러나 있다.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는 대목이다.

네가 세상 이치를 펴 늘어놓을 때는 걸핏하면 하늘을 둘러메고 나서지마는 참말 하늘이 마련한 대로 본다면 범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물건이어든, 천지만물이 살아나가는 어진도리에서 본다면 범이나 메뚜기나 누에나 벌이나 개미나 사람과 함께 같이 살기마련이지...¹¹³⁾

북학과 지식인들은 화이론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주장했다.¹¹⁴⁾ 사대부들은 주변 환경의 처세 속에서 인간이 禽獸 정도의 위치로 격상한 것에 통탄하였으며, 연암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러나 손가락질을 당한 연암은 반대로 명나라만을 고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해서든 淸나라의 선진문물을 수용하고자 노력했었다.

112) 앞의 책, 虞裳以漢語通譯官隨行 獨以文章 大鳴日本中 其名釋貴人 皆稱 ‘雲我先生 國士無雙也.

113) <호질>, 『연암집』, 汝談理論性 動輒稱 ‘天’ 自天所命而視之 乃物之一也 自天地生物之仁而論之則虎與蝗 蠶 蜂蟻與人 並而不可相悖也...

114) 박기석, 앞의 책, p.8.

연암이 <허생전>작품에 민족주의 사상을 잘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집권 사대부들의 대외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Ⅲ장 소설내용에서 언급한 작품구조 ③부분¹¹⁵⁾이다.

실제 인물인 이완(선조 35년 1602~현종 15년 1674)을 소설작품의 등장인물로 그려냈다. 그는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워 어영대장을 하였고,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을 계획할 때 훈련대장이 된 인물이다. 즉 청을 배척해야한다는 북벌과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장은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조심스레 지키고 있으니 누가 머리 깎고 되복입기를 좋아하겠습니까?”¹¹⁶⁾

이 대목은 사대부들의 인식을 말해주며 새로운 사상을 탄압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중심은 이미 청나라의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성리학적 윤리규범을 따르는 사대부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다.

2. 연암소설의 표현론

연암은 작품창작에 있어, 주제와 구성력에 신경을 썼다. 이를 <소단적치인>에서 군사와 장수로 표현한데서 찾을 수 있다.¹¹⁷⁾ 글자는 군사이고 뜻은 장수라 하여 글자와 주제 의식의 관계를 표현했다. 군사가 모여 대오를 형성하듯 글자가 모여 문장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장수가 군사를 통솔하듯 각각의 병사를 쓰임에 맞게 움직이며 장수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배열하여 목적에 맞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설

115) <허생전>, 『연암집』, 晝夜讀書 只學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賤. 허생이 이완대장과 북위 관계를 맺는 이완과 대화이다.

116) 앞의 책, 李公樵然曰 士大夫 皆謹守禮法 誰肯薙髮胡服乎.

117) <소단적치인>, 『연암집』, 字譬則士也 意譬則將也.

작품의 주제와 구성의 표현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는 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신중했다.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닌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의 글자를 사용하며 작가가 원하는 대로 주제의식을 담아 글자 하나하나에 작가의 사고관을 글로 표현하기를 원하였다.

연암은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제목을 중요시 여기며 표현하였다. 이를 敵國으로 비유하였다.¹¹⁸⁾ 작가는 제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잘 형상화시키기 위해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적국을 공략하려면 적의 동태를 잘 살피고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이에 대비한 작전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연암은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작품 제목을 정하였다.

다음 <예덕선생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연암이 생각하는 진정한 友道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작품이다. 더러운 존재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논리를 연암은 주장했다. 사람을 단지 겉모습과 출생신분으로 평가하는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였다. 穢德뒤에 先生이란 호칭을 붙여준 것에서 연암의 세계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다.

연암은 글의 서두와 마무리를 ‘파제결속’으로 표현하며 주제를 형상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겼다. 그는 서론과 결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평범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닌 비유나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글을 써서, 연암은 다른 작가들과는 다른 색깔들이 들어나 있다.

연암소설은 위의 표현방법과 풍자와 해학,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로 연암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을 드러내었다. 이를 연암이 어떻게 드러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암은 등장인물의 대립적 갈등을 그의 소설에 반영하고, 사회적 모순의 비판과 현실에 대한 판단과 반성 등을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대화나 논쟁을 통해

118) 앞의 책, 題目者 敵國也.

내면적 실체의 구명을 중시하며¹¹⁹⁾ 풍자와 해학을 사용하였다.

풍자는 다음과 같다. 풍자는 대상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조소·야유·조롱·회화화·비속어 등으로 우회적으로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와 풍속을 계량하고 도덕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교훈적인 기능을 말한다.

풍자 기법은 18세기 소설에서 많이 보여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사회·정치·경제·문화가 흔들리게 되고 그 문제점들이 실학사상을 통하여 지배계층의 신분변화를 만들었다. 연암은 그의 소설에 변화를 주어 시대적 위기와 개인이 바라보는 비판 인식을 그의 소설에 투영시켰다.

풍자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풍자적 알레고리, 어조적 풍자, 언어적 풍자가 그것이며 다음 작품내용에서 찾을 수 있겠다.

첫째, 풍자적 알레고리이다. 풍자적 알레고리는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과의 역전적 가치의 부정적 인물을 드러내고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대립적 인물을 내세우는 방법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허생전> <양반전>의 작품에 잘 반영되고 있다.

연암이 지은 <허생전>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작품에 나오는 무인도는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허생이 도적떼들을 달래어 무인도로 데려가 이상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국의 건설은 선부후교사상과 도덕사상 및 별조문자와 창제의관, 활빈행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암이 허생을 통하여 해외이상국을 건설, 신생어, 신문화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는 민족주의 사상이 투영되어 현대사회와 역전적 가치를 두었다고 본다. 작품의 말미에 허생이 해외무역의 성공으로 백만금을 벌게 되며 별조문자 창제의관의 이상을 이룰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 또한 허생은 섬을 떠날 때 배를 불 질러 버리고, 벌어들인 돈을 바다 한 가운데 버려버린다.

이와 같이 연암이 표현을 하고자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을 대비하고자

119) 두창구, 앞의 책, p.43.

우리 것이 소중한다는 주체적 의식인 민족주의 사상을 작품 속에 드러내며 풍자적 아이러니로 보여준 것이다.

다음 <양반전>작품이다.

비루한 일 끊어 버리고, 옛사람을 흠모하고 뜻을 고상하게 가지며, 오경이면 늘 일어나 유황에 불붙여 기름등잔 켜고서, 눈은 코끝을 내리 보며 발꿈치를 앓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래박의>를 줄줄 외어야 한다. 주립 참고 추위 견디고 가난타령 아예 말며, 이빨을 마주치고 머리 뒤를 손가락으로 툽기며 침을 입 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한 뒤 삼키며 옷소매로 휘양을 닦아 먼지 털고 털무늬를 일으키며, 세수할 땐 주먹 쥐고 버르듯이 하지 말고, 냄새 없게 이 잘 닦고, 긴 소리로 종을 부르며,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듯이 걸어야 한다. …(중략)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날 더위도 발 안 벗고 맨상투로 밥상 받지 말고, 밥보다 먼저 국 먹지 말고, 소리 내어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 찧지 말고, 생과를 먹지 말고, 술 마시고 수염 빨지 말고, 담배 필 쟈 턱이 비틀어질 정도로 빨지 말고, …(중략) 이상의 모든 행실 가운데 양반에게 어긋난 것이 있다면 이 문서를 관청에 가져와서 변경할 것이다.¹²⁰⁾

연암은 당대 양반사회를 진솔하게 보고 느낀점을 제시하였고 그 이면에 비판적 시선을 내비춰 주었다. 정선군 군수가 이와 같다 하겠다. 이 군수는 정선군에서 어질고 글 읽기 좋아하는 양반을 존경하였다.

그러나 정선군 몰락양반이 환곡 천석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양반신분을 매매하려는 경영부농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겉으로는 남의 급한 일을 보아주는 것은 어진성품, 천한 것을 싫어하고 높은 것을 사모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말은 하지만 양반의 자리를 순순히 주지 않으려는 괴락이 양반 제1, 2문권을 만들어 고을 사람들

120) <양반전>, 『연암집』, 絶棄鄙事 希古尙志 五更常起 點硫燃脂 目視支尻 東萊博儀誦如冰瓢 忍饑耐寒 口不說貧 叩齒彈腦 細彈嚙津 袖刷毳冠 拂塵生派 盥無擦拳 漱口無過 長聲喚婢 緩步曳履 古文眞寶 唐時品彙 鈔寫如茝 一行白字 手母執錢 不問米價 署母跣襪 飯母徒髻 食母先羹 歡母流聲 下箸母春 母餌生菹 下箸母春 母餌生菹 飲醪母嘔鬚 吸煙母輔羸 忿母搏妻 怒母踢器 母拳毆兒女 母嘗死奴僕 叱牛馬母辱嚮主 病母招巫 祭不齊僧 爐不烤手 語不齒睡 母署牛 母署錢 凡此百行 有違兩班 特此文記 下正干官 城主旌善郡守押座首別監證署.

앞에서 발표하여 군수로써 할 수 없는 위선적이며 양면적인 모습을 찾아본다 하겠다.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하며 과거에는 없었던 평민 부자계층인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암의 근대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학사상을 함께 문학 작품으로 반영하여 문학사상 형성에 기여를 했다.

둘째, 언어적 풍자이다. 언어적 풍자는 언어적 유희로 풍자적 주제가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윗트나 패러독스 등을 이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아이러니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동음이의어와 반대어 같은 말이 되풀이, 음담의 개입등이 모든 풍자의 효과를 드러내는 경우에 속한다.¹²¹⁾

다음 작품<민옹전>에 언어적 풍자가 반영되어 문학사상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춘첩자란 문에 붙이는 글월이니 바로 내 성 민이요, 방은 늙은 개를 지칭하니 바로 나를 욕하는 것이구먼, 그 개가 울면 듣기가 싫은데, 이 또한 나의 이가 다 빠져 말소리가 분명치 않은 것을 비꼰 것이로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늙은 개를 무서워한다면 개 견 변을 떼어 버리면 될 것이고, 또 우는 소리가 싫으면 그 입구변을 막아 버리면 그만이지. 무릇 제란 조화를 부리고 방은 큰 물건을 가리키니 제자에 방자를 붙이면 조화를 일으켜 큰 것이 되니 바로 용이라네. 그렇다면 이는 그 대가 나를 욕한 것이 아니라, 그만 나를 좋게 칭송한 것이 되어 버렸구먼.”¹²²⁾

언어적 유희는 풍자적 효과를 보여준다. 그는 민옹을 ‘獠’이라 하여 희롱을 하려 했지만 민옹은 자신의 고독함을 은연중에 보이기 위해 언어유희를 썼던 것이다. 그가 재능이 있음에도 펴보지 못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세태실정을 풍

121) 구창환, 「풍자문학논고」, 『국어교육연구』 1집, 조선대 국어교육과, 1975, p.92.

122) <민옹전>, 『연암집』, 春帖子榜門之文 乃吾姓也獠老犬 乃辱我也 啼則厭聞 吾齒豁音 嶮兀也 雖然君若畏獠 莫如去犬 若又厭啼 且塞其口 夫帝者造化也 龍者大物也 著帝傳龍 化而爲大 其惟帝龍乎 君非能辱我也 乃反善贊我也.

자하고자 했다. 이는 연암이 사실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대 시대적 비판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어조의 방법이다. 어조의 방법은 강한 어조로 욕설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 공격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배계층의 형식주의에 대해 그는 인식론이 전개됨을 어조의 방법으로 표현했다.

작품<양반전>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양반이 되고자 하는 중인계층에게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대비시켜 어조적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부자가 그 문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두르며, “그만두시오. 그만 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이요. 장차 나로 하여금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하며 머리를 흔들고 가서는, 종신토록 다시 양반의 일을 입에 내지 않았다.¹²³⁾

소재를 현실에서 취하고 사실적인 태도로 묘사할 뿐 아니라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횡을 일삼는 양반에게 어조적 풍자를 보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는 사실주의 사상을 반영하여 당대 모순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꾸짖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는 당대 조선사회의 위선적 세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핵심 의도를 감추고 표현하는 것은 연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사회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놀라운 식견의 소산으로 보고자한다.

해학은 다음과 같다. 해학은 언어를 통해 독자에게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긴장을 이완시키고 억압된 감정 해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풍자와 비슷한 의미로 착각할 수

123) <양반전>, 『연암집』, 富人中其券而吐舌日 已之已之 孟浪哉 將使我爲盜耶 掉頭而去 終身不復言 兩班之事.

있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구조 내에서만 비판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며 둘째, 인물에 대하여 확대 해석을 한 것이 특징이고 셋째, 역전적 관계를 유지하며 속담이나 구어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반어적 사용을 직설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점이 풍자와 다르다.

다음 작품<양반전>에서 등장인물을 통하여 작가의 직접적 언어와 동작을 객관적 제시를 통하여 해학적 표현을 보여주는 대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며,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도 글을 잘 읽지만 현관에게 환곡을 갚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짜리도 못되는 그놈의 양반.”¹²⁴⁾

시대가 변화를 하게 되자, 피지배계층들은 지배계층의 부정부패를 일삼고 꾀박을 주는 행태를 보고 기존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를 사실주의 기저로 하여 해학으로 조명하였다.

종래에는 양반의 지위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개혁과 보수의 시기에는 풍족한 생활이 아닌 고난의 생활을 등장인물 양반은 했던 것이다. 양반의 처는 당연이 고난의 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쓴 소리를 하며 당대 양반계층의 몰락을 해학적 표현했다.

또한 군수가 제1, 2문권들을 말하자, 경영부농은 위선적인 양반의 모습을 재빨리 인식하여 그만두시오 하며 말하고 가버린다. 이와 같이 말한 저의는 경영부농이 생각하는 양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암은 두 가지의 문권을 대비시켜 양반도덕의 타락성을 대비시켜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 <민옹전>에서 민옹이 좌객과의 대화에서 해학을 보여주고 있다.

수십 가지 난제를 물어보아도 모두 메아리처럼 재빨리 대답해 내 끝내 아무도 그를 궁지에 몰 수 없었다. 자신에 대해서는 추어올리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한 반면 곁에 있는

124) 앞의 책, 其妻罵曰 生平子好讀書 無益縣官糶 咄 兩班! 兩班不直一錢.

사람에게는 조롱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옹의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도 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¹²⁵⁾

연암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민옹의 논리를 높여주면서 해학적 비판을 하고 있다. 관념적 질문을 한 좌객들은 민옹의 현실적 대답으로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한다. 민옹의 입은 당시 현실적 사회체제에 대한 해학적 요소를 비판의식을 사실주의 사상과 함께 펼치며 표현했던 것이다.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는 다음과 같다. 사물을 설명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그는 “비유는 유격병이다.”¹²⁶⁾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연암은 유격병이라고 정의하여 독자들이 소설을 읽을 때 유격병이 최전방을 향해 적진에 들어가 종횡무진 누비며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게 기습 공격하듯 작품의 주제의식을 제시하였다.

연암은 자유자재로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를 활용하여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중의적이며 다의적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확대되도록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원관념이라 하고 원관념에 비유되는 것을 보조관념이라 하였다. 즉 양자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여야만 그 내포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암이 새로운 인식의 대상을 접했을 때 가장 가까운 유추를 자신의 선형적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인식 대상을 확인했던 것이다.

또한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는 작가의 주관적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 준다. 그는 구체화의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방식을 가리키며 이에 따른 독자의 참여도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연암의 비유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를 끌어들이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장치역할을 하고 있다.

125) 앞의 책, 語數十難 皆辨捷如響 竟莫能窮 自讚自譽 嘲傲旁人 人皆絕倒 而翁顏色不變..

126) <소단적치인>, 譬喻者 遊騎也.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유적 관념, 은유적 관념, 우유적 관념이 그것이다.

첫째, 직유적 관념이다. 이것은 주제의식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 보조관념에 제시된 모습을 원관념의 모습으로 유추시켰다. 이는 새로운 인식의 대상을 형상화로 제시하였다.

날이 저물자 없는 대포소리가 정원 안에서 들리는데, 그 소리는 천지를 흔들고 매화꽃이 사방으로 흩어져 마치 숯불을 부채질하여 날리는 것 같고 불을 매단 화살이 세차게 뿔어져 나는 것 같다. 마치 여인이 거울을 보며 생긋 웃는 듯 바람을 맞이해 비스듬히 춤을 추는 듯 하기도하고, 마치 돈이 기괴한 모습을 한 듯, 토끼(달)의 주둥이가 찌진 듯(달의 모양이 이지러짐), 온갖 꽃병이 이어져 달에 닿으려는 듯 여사가 그 품위를 평정하는 듯하다. 꽃방에 드리운 꽃술이 분명하고 봉우리에 찍힌 점이 가느다란듯한 모양들이 모두 불꽃으로 변하여 나는 것 같다. 날 짐승, 길짐승, 벌레, 물고기의 족속들이 날고 달리고 꿈틀거리고 뛰며 모두 생각과 모양을 갖추었다. 새는 더러 날개를 펴서 벌리기도 하고, 부리로 깃을 문지르기도 하고 혹은 발톱으로 눈을 비비기도 하고 혹은 벌과 나비를 쫓기도 하며 혹은 꽃과 과실에 입을 대기도 했다. 짐승들은 모두 뛰어오르고 솟구치고 당기고 움켜쥐고 아가리를 벌리며 꼬리를 빼며 하는 모습이 천태만상인데 모두 불꽃으로 펄펄 날아 공중에 이르러 시름시름 사글어 들었다. 대포소리가 더 커지고 불빛은 더욱 밝아지면서 온갖 시선과 수많은 부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뿔뿔 날아올라 더러는 뺨목을 닦는가하면 더러는 연잎 배에 타고 더러는 고래에 타기도 하고 혹은 학을 탔으며, 호리병을 손에 쥐고 혹 보검을 등에 차고 혹은 손으로 범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어느 것이고 모두 허공에 둥둥 떠서 서서히 날아가는데 눈으로 미처 다 볼 겨를도 없이 번쩍번쩍 하다가 밝음이 부끄러운듯 없어졌다.¹²⁷⁾

127) <매화포기>, <상장잡기>, 『연암집』, 日既黃昏, 萬砲出苑中, 聲雲天地 梅花四散 如扉炭而火矢迸流也 窺鏡嫣然 迎風敲科 魯錢欲古 兔嘴未敷 斷以瓶史月表 女士殿最 跗綬分明 藥罌廉纖 皆火而飛也 纖而鳥獸蟲魚之族 飛走蠕躍 或具情狀 鳥或展翅而伸 或以唼刷羽 或以爪刮目 或趁蜂蝶 或銜花菓 獸皆驤拏攫 呀口張尾 千態萬狀 皆爍爍火 飛至半空 冉冉而銷 砲聲益大 火光益明 而百仙萬佛 迸出飛昇 或乘槎 或乘蓮舟 或騎鯨駕鶴 或擎葫蘆 或負寶劔 或飛錫杖 或跣足踏蕙 或手撫虎頂 無不泛空徐流 目不暇視 閃閃羞明.

연암은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선진문물과 천태만상을 접하게 된다. 그 중에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기념 불꽃놀이에 대해 밤하늘의 장관을 다른 사물을 끌어다 약역하게 표현하는 묘사방법을 택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법으로 일관하여 그 시각적 아름다움을 눈앞에 펼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재생하였다. 불꽃의 아름다움을 꽃, 조수 등의 동작으로 나열하여 비유하였다.

그는 현장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글로 조명하기 위해 문장의 변화감을 주었던 것이다. 생생한 현장감과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는 독특한 표현기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둘째, 은유적 관념이다.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관념을 숨기면서 보조관념만 강조하기 주제의식을 알렸다 이는 원관념을 생략하고 보조관념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마치 상징과 같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는 관념이기도 했다.

어린이가 들에서 노닥거리다가 귀가 갑자기 ‘잉’하고 울리니 싱글벙글하며 동무아이에게 소곤거렸다. “너 이 소리 좀 들어볼래?” 내 귀가 앵앵거린다. 마치 생황을 부는 듯, 피리를 부는 듯 그 소리가 동글동글한 별 모양 같아.” 동무 아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 해도 끝내 들리는 것이 없다 하자 그 어린이는 딱하여 소리를 지르며 남이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일찍이 촌사람과 같이 자는데 어떤 사람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다. 토하는 듯, 휘파람 부는 듯, 탄식하는 듯, 숨을 내뿜는 듯, 불을 부는 듯, 물이 끓는 듯, 빈 수레가 엮어지는 듯하여 숨을 들이쉴 때는 뽁뽁 툭 켜는 소리가 나고, 내쉴 때는 썩썩 돼지가 씨근거리는 것 같았다. 옆 사람이 흔들여 깨우자 그는 벌컥 성을 내며 말한다. “내가 언제 코를 골았던 말인가?”¹²⁸⁾

그는 이 글에서 이명증을 은유로 표현하였다. 이명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음에도 다른 이들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 근심을 가졌다. 그는 이를 이런 의도에 은유를 사

128) <맹소관문고> 자서, 小兒嬉庭 其耳惚鳴 啞然而喜 潛謂鄰兒 曰爾聽此聲 我而其嚶 奏鞞吹笙 其團如星 鄰兒傾耳相接 竟無所聽 悶然叫號 恨人之不知也 嘗與鄉人宿 鼾息磊磊 如哇如嘯 如嘆如噓 如吹火 如鼎之沸 如穴車之頓轍 引者鋸吼 噴者豕豕句 被人提醒 勃然而怒 曰我無是矣.

용하였다. 연암은 자신들의 형편없는 문장들을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애쓰는데 좀 잘된 문장은 얼마나 내세울까 하는 당대 문인들의 행태를 은유로 제시했던 것이다. 당대 문인들이 정신적 풍토와 그 가치관을 전도하여 떼떽하게 내세워야 할 것은 숨기고 반대로 숨겨야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문학사상으로 구현했던 것이다.

연암의 인식론 중 사실주의가 그의 표현론에 밀바탕이 되었다. 당대 문인들은 작 현실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 문학사상이 제시되는 조건보다는 당대 문인들이 古文을 답습하는 행위를 연암은 ‘이명증과 코고는 버릇’으로 은유적 표현을 쓰고자했다.

셋째, 우유적 관념이다. 연암은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 다른 주제를 적절히 암시하여 중심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원관념을 완전히 숨기고 다만 비유하는 말만 내세워 동물, 식물을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웅덩이, 도랑, 소, 늪 사이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가 있으니 그 이름을 淘河라고 부른다. 해감을 쪼고 마름 속에 몸을 숨기고 오로지 물고기만 찾는다. 깃털과 발, 입부리에는 더러운 것을 뒤집어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허둥지둥 마치 잃은 것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종일토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다. 청장이란 새가 있다. 맑고 시원한 연못에 서서 편한 자세로 날개를 접고 장소를 옮기지 않는다. 그 모습은 게으른듯 낮빛은 잊은듯하다. 고요하게 있을 때는 노랫소리를 듣는 것 같고, 꿈쩍하지 않을 때는 수문장 같지만 물고기가 앞에 오기만 하면 꾸부려서 쪼아댄다. 그러므로 청장새는 편하게 있으면서도 항상 배가 부르고, 도요새는 수고롭지만 항상 주린다.¹²⁹⁾

연암은 이 글에서 인간을 도하와 청장으로 드러내었다. 도하는 온갖 추한 짓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을 떨지만 그 악착스러움에 비해 얻는 소득이 없는 인간으로, 청장은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세상에 담박하면서도 항상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이 관념은 연암이 종래의 글에서는 볼 수 없는 참신한 문장

129) <담연정기>, 『연암집』, 潢溝瀦澤之間 有食魚之鳥 其名曰淘河 棲於泥 而蒐蘋苳 唯魚之是求 羽毛趾吻 蒙穢濁而不耻 遑遑焉 若有遺失而索之者 然竟日而不得一魚 有青莊者 立於清冷之淵 怡然斂翼不移其處 其容若惰 其色若忘 靜如聽歌 止如守戶 游魚至前 俛而啄之 故 青莊 逸而常飽 淘河 勞而恒饑..

을 만들어 사실주의 사상을 투영하여 드러내었던 것이다.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는 연암의 문학사상을 알려주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첫째 당대 현실생활을 근거로 소재를 발견한 점, 둘째 비유를 쓰고 연암소설의 작품 구성을 유기적으로 통일하여 산만함을 수습하고 변화를 지향한 점. 셋째 예술적 형상성이 없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말들을 구체적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의미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생동감있게 보여준 점이 그것이라 하겠다.

연암소설에 나타난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를 다음 몇 개의 작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민옹전>에서 이런 관념을 찾을 수 있다.

“영감, 금년에도 까마귀를 그리지 않겠소?”¹³⁰⁾

민옹의 부인은 해마다 벽상에 경구를 붙이는 남편의 모습을 놀린다. 이를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벽에 그린다고 보는 뜻도 있지만 뛰어난 선비가 재주를 발휘를 하지 못하는 민옹의 부인의 애달픔을 연암은 사실주의적인 우유적 관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벽에 그린 까마귀 매가 되지 못하였듯이 옹은 뜻있는 선비였으나 늙어 죽도록 포부를 펴지 못했구려 ¹³¹⁾

이 작품을 쓰면서 연암은 양반의 무위도식에 대해 사실주의 사상을 들어 비판했다. 연암은 간접적 표현으로 “밥만 축내는 황충”으로 표현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유격병처럼 자유자재로 적을 공략할 수 있는 논리로 연암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고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의미 확장하였다.

130) <민옹전>, 「연암집」, 翁,今年畫烏未.

131) 위의 책, 壁上烏 未化鷹 翁蓋有志士 竟老死莫施.

V. 결 론

18세기의 개혁과 보수라는 양 진영이 빚어내는 갈등의 정점에 살았던 연암은 문인이자 사상가로서 실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그의 문학 속에서 찾으려 했던 인물이다. 본고는 이에 연암의 문학사상을 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10편의 연암소설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통해 조망해 보았다.

제Ⅱ장에서 연암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연암의 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와 평등주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연암은 5살 때부터 부리던 하인들과 절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피지배계층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며 상하 신분에 대한 편견없이 사람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게 된다. 훗날 이러한 경험은 연암 문학사상의 기층을 형성하는 ‘인본주의’와 ‘만민평등’이라는 큰 줄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혼을 하면서 스승과 부인을 동시에 얻은 셈이 되는데, 장인과 처숙으로부터 맹자와 사기를 배우는 등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의 독특한 문체와 문학사상이 이때 자리 잡게 된다. 연암은 이 시기에 『연암별집』 「방경각외전」에 실린 <마장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민용전> <양반전> <김신선전> <우상전>과 원문이 전하지 않는 <봉학사대전> <역학대도전>을 포함한 九傳의 작품을 지었다. 이후 44세이던 해에 흥미하던 정국이 안정을 되찾으며 여행을 가게 되고 여행을 다녀와 <호질> <허생전>이 담긴 연암의 불세출 견문록인 「열하일기」를 짓게 된다. 50세의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벼슬을 얻게 되고, 안의현감을 지내면서도 그는 잘못된 사회제도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소설 <열녀함양박씨전>을 통해 표출하기도 했다.

제Ⅲ장에서는 연암소설의 주제와 문학사상의 기반을 조명해보았다.

작품의 대상은 연암의 작품 중 현존하는 10편의 소설 <馬駟傳> <穢德先生傳> <閔翁傳> <兩班傳> <金神仙傳> <廣文者傳> <虞裳傳> <許生傳> <虎叱> <烈

女咸陽朴氏傳> 을 중심으로 하되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신분계급을 중심으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서민중심적 삶의 인식,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 중인층이 겪는 신분적 한계가 그것이다.

첫째, 서민의식의 새 유형 <穢德先生傳>을 중심으로 작품을 고찰해보고 <馬駟傳> <廣文者傳> <烈女咸陽朴氏傳>을 한데 묶어 연암 문학사상의 기반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배계층의 허상을 폭로한 <兩班傳>을 중심으로 하고 <虎叱> <許生傳>에 나타난 양반의 이중성을 고찰해 보았다. 셋째, 등용에서 소외된 인물의 좌절감을 그린 <閔翁傳>을 중심으로 하고 <金神仙傳> <虞裳傳>에 드러난 사회적 부조리의 문제를 밝혔다.

제Ⅳ장은 연암소설의 문학사상을 인식론과 표현론으로 제시하였다.

연암의 인식론에 따르면 사물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는 시각과 방법, 위치 등에 따라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인식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체계를 버리고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적 인식을 수행해 내었다.

연암의 문학사상으로는 크게 사실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을 들 수 있었다. 사실주의 사상은 ‘진’을 추구하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는 의미로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뜻과 글자와 사물 등 하찮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표현하려는 모습에서 비롯된다. 古文을 모방하거나 작은 것, 하찮은 것을 무시하는 종래의 모습과는 완연하게 다르다.

표현론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풍자이다. 연암은 주로 지배계층을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조소·야유·조롱·희화화·비속어 등을 통해 대상을 공격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사회와 풍속을 개량하며 도덕적인 세계 지향의식을 표현하였다. 이를 풍자적 알레고리와 언어적 풍자, 어조적 풍자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해보았다. 둘째, 해학이다. 해학이란 언어를 통하여 읽는 독자에게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긴장을 이완시키고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연암의 문학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통해 비판하는 예문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셋째, 비유적 관념의 형상화로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식과 사물들을 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체화하는 작품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암을 대변하는 문학사상과 인식론, 그리고 독특한 표현론들은 연암의 소설 속에서 사회의 모순과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시정되기를 원했던 연암의 지향의식을 표출하는 통로가 됐던 것이다. 특히 날카로운 풍자와 은유를 통해 현실을 담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의 대책론적인 작품들의 가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정신적인 좌표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I. 기본서

박지원, 『열하일기』

_____, 『연암집』

국역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77.

국역 『연암집』 2, 민족문화추진회, 2004.

II. 단행본

고미숙, 『나비와 전사』, 휴머니스트, 2006.

김 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0.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 예문서원, 2005.

김영동, 『증보 박지원소설연구』, 태학사, 1993.

김윤식, 『한국문화사』, 민음사, 2004.

김지용,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_____, 『연암 박지원의 이상과 그 문학』, 명문당, 2005.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 연구』, 한국문화사, 1986.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김하영, 『고전작가론』 2, 한국문화사, 1996.

김혈조, 『박지원의 산문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박기석, 『박지원문학연구』, 삼지원, 1984.

박성순, 『박제가와 젊은 그들』, 고즈윈, 2006.

박수밀,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예술』, 태학사, 2005.

- _____,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이론』, 태학사, 2005.
- 박종채, 박희병 엮음,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2005.
- 박지원, 기획출판부 엮음, 『연암 박지원』, 거승미디어, 2004.
- _____, 『나는 곁곁선생이라고』, 홍기문 옮김, 보리, 2004.
- 박지원, 리상호 엮음, 『열하일기-상,중,하』, 보리, 2004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2006.
- 성현경, 『열녀함양박씨전과 열녀함양박씨전병서의 구성』,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61.
- 신승하, 『중국근현대사 :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상·하)』, 대명출판사, 2004.
-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2002.
-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0.
- 이 암, 『연암 미학 사상 연구』, 국학자료원, 1995
- 이가원, 『연암소설연구』, 을유문화사, 1965.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2003.
-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 정 민, 『비슷한 것은 가짜다』, 태학사, 2000.
- 정대림, 『한국 고전문학비평의 이해』, 태학사, 1991.
- _____, 『한국고전비평사 -조선후기편』, 태학사, 2001.
- 정상균, 『한국 중근세 서사문학사연구』, 새문사, 1995.
- 정옥자,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차용주, 『한국한문소설사』, 아세아문화사, 1989.
- 차충환, 『한국고전소설작품연구』, 월인, 2004.

III. 국내 학술지 논문

- 강동엽, 「우상전에 투영된 이언진과 그의 세계 인식」,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 건국대국어국어국문학 연구회. Vol.19, 1995.
- 고미숙, 「연암 사유에 있어서 ‘탈근대적’ 비전에 대한 탐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2005.
- 김명호, 「실학파의 문학과 근대리얼리즘」, 『한국한문학』, 한국한문학회 Vol.19, 1996.
- 김문식, 「연암 박지원이 파악한 18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한문학』, 한국한문학회, 2005.
- 김문용, 「북학과 교우론의 윤리적 지평」, 『한국한문학』, 한국한문학회, 2005.
- 김병민, 「동아시아 근대지향의 태동과 주변 지식인의 자각」, 『한국한문학』, 한국한문학회, 2005.
- 김성윤, 「정조 철학사상의 정치적 조명」, 『부산사학』 Vol.25 No.1, 부산사학회, 1994.
- 김혈조, 「연암체의 성립과 정조의 문체반정」, 『한국한문학』 한국한문학연구, vol.6, 1982.
- 김화진, 「연암의 청빈」,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연구 Vol.11, 1988.
- 노대환, 「정조대의 서학수용 논의」, 일지사, 『한국학보』 Vol.25, 1999.
- 송재소, 「18세기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전환」,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10월, 2005.
- 원재린, 「영·정조대 성호학파의 학풍과 정치 지향」, 연세대국학연구원, 동방학지 vol.111, 2001.
- 정정희, 「영조전반기(1724~1748년) 중앙학계와 영조의 성리학 이해」, 한국사연구 Vol.103, 1998.
- 정일남, 「박제가의 사유패턴」, 『한국실학학』, 한국실학연구 Vol.10, 2005.

IV. 학위 논문

- 간호윤, 「연암소설에 나타난 참여의식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정주, 「연암 박지원의 한문단편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혈조, 「연암 박지원의 사유방식과 산문문학」,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김효순, 「연암의 문학과 고찰」,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두창구, 「연암소설의 서사구조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민병수, 「한국소설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7.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송희정, 「연암의 한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신란수, 「연암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원유진, 「연암소설의 주제에 대한 일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경숙, 「민옹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상후, 「연암소설 등장인물의 성격과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이재권, 「연암소설의 성격연구」, 숭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이종주, 「북학과산문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이화성, 「연암소설의 인물 구성과 서사 전략」,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장신부, 「연암문학과 경제사상」,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조일형, 「연암 박지원 소설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최명옥, 「연암소설의 주제미학」,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